朝鮮日報
夕刊 十七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極東駐屯卅萬 赤衛軍撤退要求

不應하면「그」에 匹敵할 日滿兩國兵力整備

廣田內閣對蘇方針

寺內陸相

【東京電話同盟】大田駐蘇大使의 歸國을 機會로 對蘇外交根本方針은 內外로부터 愼重批判의 注目이 集中되고잇는데 海陸外三相會議再開의 結果 具體的으로 決定된 日本對蘇外交의 基調는 如左히 懸案解決第一主義와 倂行하야 極東에 集中되어잇는 三十萬赤軍의 撤退를 中核으로한것이다

一、滿蘇國境問題 國境委員會에 對한日本提案은 이미 蘇聯政府에서 檢討中인바 이것의 交涉進展에 伴하야 漸次國境紛爭의 善後措處에 曙光을 認定할수가잇슬것이다

一、日蘇漁業交涉 漁區安定協定의 延長問題等을 中心으로한 日蘇漁業交涉은 延長期限의 長短에 關하야 아직 日蘇兩國間에 意見이 一致되엇다고는말하기어려우나 日本政府로서는 어데까지 蘇聯의 重大讓步를 要求하기를 마지안는다

日蘇間의 根本傾向을 決定할極東赤軍의 措處에 關해서는

一、尨大不必要한 赤軍極東兵力을 一定地域外에 後退케할것을 要求하고 또

一、日露講和條約의 精神에따라 滿蘇國境線一帶에 亘하야 無防備地帶를 設定할것

一、以上의 公正妥當한 要求가 容認되지안흔데잇서서는 赤軍의 不斷의 脅威를 除去할 最後의 方法으로 國境第一線에 蘇聯邦極東軍에 匹敵할수잇기까지 日滿兩國兵力을 整備하야 實質上에잇서서 極東赤軍에依하야 生하는 脅威를 一掃할工作을 進行하는外에 方途가업다

大田大使首相과懇談

【東京電話同盟】去十三日歸國한 駐蘇大使 大田爲吉氏는 十七日正午官邸에 廣田首相을 訪問하고 午餐을가티하면서 最近의英蘇、蘇獨關係及 歐米諸國의 對蘇關係、蘇聯邦의 產業國防 特히極東軍備 蘇聯邦政府의 對日感情滿洲國境問題와 蘇滿關係等에 關하야 詳細報告하고 이에對한日本方針에 關해서도 重要指示를請하고 午後一時에 辭去하엿는데 大田大使와 首相은 親密한關係에잇는同時에 首相도 駐蘇大使이엇스므로 兩者間에는 相當히深刻한 意見交換을 行하엿다

藤沼翰長 前田鐵相을訪問

【東京電話同盟】藤沼書記官長은 十七日午前九時四十分 鐵相官邸에 前田鐵相을 訪問하야 國策案과 明年度豫算案에關한 馬場藏相의 事前工作經過를 詳細報告하고 今後取扱에關하야 鐵相의 意向을 聽取하는同時에 鐵道會計의 一般會計繰入問題에 關하야 意見交換을 行하엿다

一般男女市民에게 武器操縱法訓練

現在의兵士學生軍事敎練만은不足타고

軍擴의나치스獨逸

【伯林發同盟】軍備强化、海軍擴充、軍事施設改善으로 擧國的軍擴에 狂奔하고잇는 나치스獨逸에서는 兵士와 學生의 軍事敎練만으로 아직 不足하다고 一般男女市民에게 武器操縱法의 習得을 크게奬勵하기로되엇다 爲先始初로 勞働團體『獨逸勞働戰線』의 會員들에게는 적少額의費用으로 會員以外의人으로 參加하는者에게는 約五圓의 費用으로 피스톨射擊을 敎授練習케하기로되엇다 但 피스톨及 彈藥은 無料로 供給하고 練習은 警察의射擊場에서行한다 이에關하야『勞働戰線』機關紙『앙그리프』는 如左히述하얏다 「…는것은 全獨逸市民의 義務이다 射擊은 크게自信가 快的인 스포ー츠일뿐아니라 사람에게 自信과安心을 興하고 이어서 一旦有事時에『市民國防』의使命을 達成하는 것이다」

政府의傍觀態度에 佛國內輿論沸騰

西班牙問題와佛國苦悶

【巴里十六日發同盟】西班牙內亂의 重大化를 憂하는 同時에 佛國政府의 危懼를 阻止하려는 佛國政府는 그唯一의 方策으로 不干涉協約案을 形式으로 各國政府의 支持를 要請하얏는데 獨伊兩國政府는 言을 左右하고 이에 容易히 贊意를 表하지안키때문에 事態는 바로 危機一髮의 局面에 逢着하게되엿다 獨伊兩國政府는 不干涉協約案에對해서 … 佛國政府는 西班牙國內의 左翼政府派를 … 佛國政府에 對하야 … 行動의 自由를 回復하는同時에 佛國政府는 … 歐洲 파시스트政權과 …

우루과이政府 西班牙叛亂에對해 居中調停要請

【몬테비데오十六日發同盟】우루과이政府는 同胞相食하는 西班牙國의 內亂을 靜觀할수업다고 十六日 南北米洲各國에 對하야 居中調停을 提唱하얏다 提言要旨는 如左하다 西班牙內亂은 日復日 惡化하야 停止할바를 모른다 南北米洲各國政府는 速히 居中調停 …

米主力艦二隻 建造를發表할方針

【華盛頓十六日發同盟】米國政府는 … 主力艦二隻의 建造를 … 一九三七年度 …

二·二六事件一派 今泉少尉位階喪失

【東京電話同盟】二·二六事件 … 今泉少尉 … 七月五日 … 位階를 … 十七日 …

不干涉案에對하야 獨伊政府不回答

【倫敦十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 … 西班牙內亂 … 不干涉案 … 獨伊兩國政府 … 回答을 …

스타하노프運動 軍需工業에活躍

赤衛軍指揮官의共產黨員率 上部는거이百%

【哈爾濱發】九月一日 스타하노프運動一週年紀念을 目前으로 蘇聯軍需工業部門에잇서서 스타하노프的 能率增進을 運行하고 잇다는것은 旣報와갓거니와 特히 緊迫한 國際政局의 刺激을바더 軍需工業及 赤軍內의 스타하노프運動은 가장 熾烈하다 이와 同時에 또 赤衛軍及 軍需工業部門에 잇서서의 黨員의 大大的 … 注力하고잇다 最近情報에 依하면 赤軍內의 黨員數는 顯著히 增加하고 또 主要한 地位는 全部此等黨員이占하고잇다 即 兵科別指揮者中의 黨員比率은 如左하다

◆裝甲、탕크部隊=聯合指揮官一〇〇%、大隊指揮官九八%、中隊指揮官八六%、小隊指揮官八三%

◆步兵=聯合指揮官九五%、大隊指揮官九二、六%、支隊指揮官八七、七%、飛行附指揮官八九、六%、飛行十六、三、%

◆砲兵隊及 騎兵隊=兵團指揮官九六%聯合指揮官八九、一%

◆其他의 指揮的地位에잇는者 …

陸軍은八億圓臺 槪算書提出遲延乎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明年度豫算槪算을 十五、六日까지에 提出할豫定이엿는바 明年度豫算은 昭和十二年度以降 二十三年度에 亘한 十二個年 繼續 …

所澤齊齊哈爾飛行

【所澤電話同盟】所澤齊齊哈爾間 日滿連絡航空은 十七日午前五時半新偵察機四機에 辻大尉以下八名이 搭乘하고 라디오코파스를利用하야 一路 壯途에 올랏는데 太刀洗에 午前十一時半到着 까솔린을 補給한후正午同所出發 海上飛行으로 大連까지 飛行하야 十八日 大連齊齊哈爾一千키로의 長航을 飛行할 豫定이다

人事·集會

◆渡邊彌平氏(朝鮮殖產銀行副頭取)新任人事次來社
◆金子隆三氏(同理事)同上
◆相川正一氏(鐵道局營業課旅客係長)新任人事次來社

八面鋒

◇濟南一帶의 水害、갈수록 慘狀을 報導。
◇물난리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날지경。
◇二千餘年을 두고 治山治水에 餘念이 업것만 漢江、洛東江은 밤낫 泡濫만하니 웬일?
◇根本策은 根本策이오、目前의 慘狀은 救濟해야 한다。
◇먹을것 입을것 업는 사람、그중에도 父母와 妻子를 일흔 사람、따뜻한 밥 한주먹과 몸가릴 옷 한벌이 必要하다。
◇옷 가진 이는 옷으로、쌀 가진 이는 쌀로、정성을 바치라。
◇정성에 만코 적고가 잇소랴。

廣西軍續續投降

買收工作의奏效로

【廣東十七日發同盟】蔣介石氏의 廣西軍에 對한 買收工作은 着着 奏效하야 第三飛行隊의 中央軍에잇서서 空軍司令兼航空學校長 林維相氏는 飛行機로 廣東에 十六日午後五時 飛到하야 廣東到着 卽時로 蔣介石氏와會見하야 廣西側의 內部情勢를報告하고 對策에關한 進言을하얏다 林維相氏의 南寧脫出은 廣西側에 重大한 打擊을 與하야 白崇禧氏는 이報에 接하자 곳在南寧의 廣東出身飛行將校三十名을 監禁하고 空軍의 中央投降을 防過에 努力中이데 市內는 人心의 動搖가 甚하고 廣西部隊의 投降은 接踵하야 大勢는 이미 決定된것으로 본다

軍事費增大는 資本家利潤增大

十六日社會大衆黨、代議士會 內閣批判聲明書發表

【東京電話同盟】社會大衆黨代議士會는 十六日午後一時부터 芝協調會館에서 開催하고 安部委員長을 議長에 推薦하야 各種報告를한後 如左한 內閣批判聲明書를 發表하고 同五時 散會하엿다 現內閣은 組閣以來 庶政一新 國民生活安定을 標榜하고 特別議會에서도 謙讓 이를 强調하엿스나 事實은 이에 反하고잇다 明年度豫算編成方針及 內閣의 所謂國策을 보건대 勤勞大衆의 生活安定을 爲한 政策은 하나도업다 軍需國營等은 資本家의 利益을 圖하는 傾向이 益益 强하다 軍事費增加도 亦是 이에 依하야 勤勞大衆을 희생하고 資本家의 利潤增大의 方針인것을 指摘하야 軍事費增大에 抗議한다 政民兩黨이 外交國策樹立의要를 唱하나 政府에 進言한모양이나 無內容하고 無力한 從前의 五相會議의 轍을 밟는것이라고 안할수업다

少毫의故障도안내고 全"코ー스"를踏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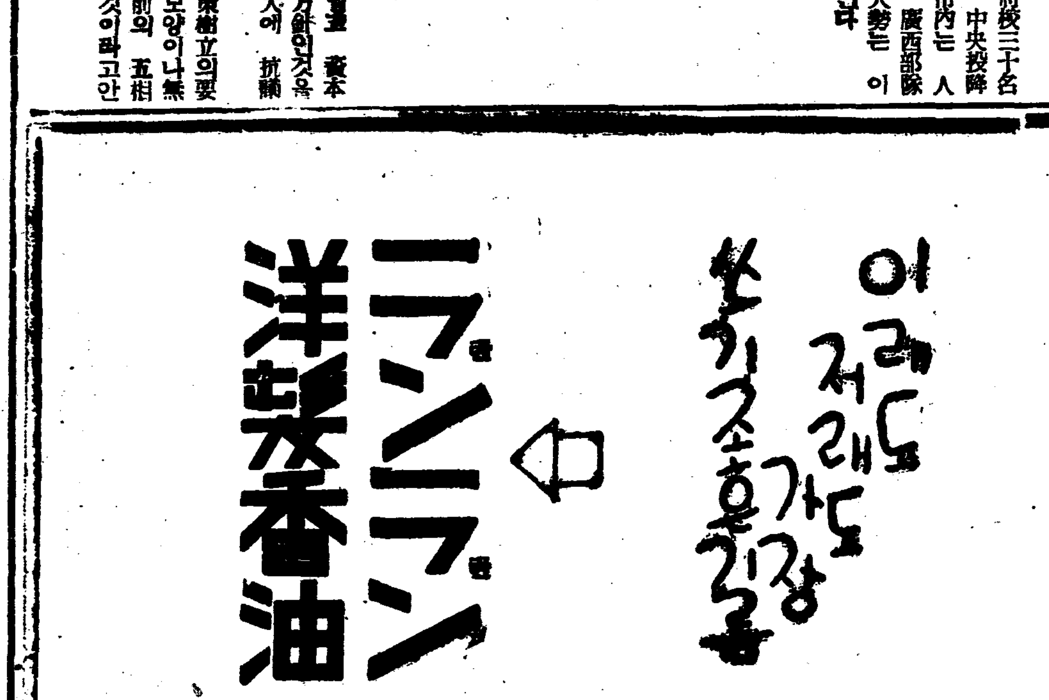
探險團員과番外等八十四名의意氣衝天

白頭觀參無事히完了

【惠山鎭에서 本社特派員 李相昊 發電】

지난십일 농사동(農事洞)을 떠난이래 일주일동안 일백팔십키로에사백오십리 등산행정을 비바람과싸워가며 우리백두산탐험단원삼십명의 번외(番外)단원과 및경비원 레마(駄馬)등 모다팔십사명의 대부대는 무사히적코ー스를 통과하고 십오일에 포태리(胞胎里)에도착 십륙일은되며 혜산진(惠山鎭)에 도착하엿다 그사이우리단원사십명중에는 한사람의 병자도내지안헛고 한사람의 락오자(落伍者)도 업시 처음부터 끗까지모다 원긔왕성하야 하늘이라도두를만한 긔세가 … 습지(濕地)가아니면 정글으로서 그우에 쓰러진나무가 길이다 십오일에 답파한 삼지연(三池淵)에서 포태리에 일으는 울막어포태리까지 이십팔키로가 코ー스는 이번탐험행정의 최종의코ー스이며 천지(天池)를빼는 두산의왕(王)이라고하면 삼지연은 맛당히녀왕(女王)이라고 할것이다 고요한숭엄사이에 자처잇는 수정과가티 맑고잔잔한호수사가에서의 하로ㅅ밤의 막영은 이행정의 최종막영으로 유쾌하기도하고 섭섭하기도한막영이엿다 십오일오전열한시에 삼지연을떠나 포태리로 향하엿는데 이의코ー스는 적코ー스중가장 험하다는이보다 가장길이괴악한코ー스이다 …

… 무산(茂山)에서 보든 천왕당(天王堂)과 가튼 귀모이나 좀 … 지지를안는가 여긔는 인간이다 … 만나게된것이다 두도(道)경비원 삼십오명의 호위를바드며 행진은계속되엿다 먼저 전선구에부친통신이 전부성공되엿다는 본 …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紙幣偽造者의裁判

幹部 … 地方主任 監督所長
若干名採用 …
京 … 町四五

달빛어린沙漠

天下一品! 一家一場!
イトライキン
森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東洋劇場
團成社
中央館
怪盜黑頭巾
浮かれ櫻
ごんぐり頓兵衛
世界第一의富者女子
어느女子의一生
春香傳
不良의안해

罹災民十五萬名 死傷者六百卅餘多數

交通의恢復따라眞相判明

十七日正午警務局集計

【十七日正午警務局集計】이번수재의 피해상황은 날이개여가고 각지교통기관이 회복되여 자세한 조사가 진행됨에따라 점차 그피해상황이 매우참담하여가는 것을 알수잇다

이제경무국에서 각도의경찰부의 보고를바다가지고 십칠일정오까지의 집계를한것을보면 이번수해에 사망자가 삼백팔명 행방불명자가 일백구명 부상자가 이백이십명 한계 인명의사상자는 실로륙백삼십칠명의 다수에 달하엿다

또 가옥의피해는 전궤(全潰)가 일천칠백삼십구호이고 류실이일천구백오십사호 반궤가일천륙백사십사호 침수가 이만오천일백팔호로 그리재민이실로 십오만명의 다수이다 이외에전답의 류실과 매몰(埋沒)이 삼천실륙정보 침수가 삼만사백이십정보에 달하는데 아직농작물의 피해는 조사가 못나지안흔곳이 만흠으로 압흐로 이수자는 더 커질모양이라한다

道名種別	人 死者	傷者	行衛不明	家屋 全潰	半潰	流失	浸水
▲京畿道	一四	—	—	一四九	—	一〇二	[illegible]
▲忠淸北道	八六	六九	四一	六六	六六	四三	[illegible]
▲忠淸南道	二	二	—	九	—	二	[illegible]
▲全羅北道	四三	一四	[illegible]	一六五	一五六	一三五	[illegible]
▲全羅南道	一	—	—	—	—	—	[illegible]
▲慶尙北道	一四	五	九	一三六	一二五	四五	[illegible]
▲慶尙南道	三三	四二	四	一〇四	—	五二	[illegible]
▲平安北道	一	—	—	—	—	—	—
▲江原道	一〇八	八九	三	四四六	四五五	一,〇八九	[illegible]
▲咸鏡南道	—	—	—	二	—	—	三
▲咸鏡北道	—	—	—	八	四四	—	[illegible]
合計	三〇八	二二〇	一〇九	一,七三九	一,六三四	一,九五五	[illegible]

梁山支局救護班

【勿禁에서 梁山支局長金鍾業發電】오늘아츰 우리구호반은 구료약품을가지고 원동(院洞)에들어가서 피난민이백명중 병이잇슬듯한사람 백명에게 약품을분배하여주엇다 긴급히 구제를바더야할 일백오십명은 방금 당국의구조를 갈망하고잇스며 본사의구조에 감사하기를마지안는다 물은점점 줄어가는데이제부터야구호의손이절대필요하다

長霖에勞働者困境

【木浦】개일듯개일듯하고도 끈칠줄모르고나리는비는 사십여일동안계속하야 칠월이후 목포지방의강우량은 륙백미리에 달하야 평년보다칠할이 더하고 작년보다는 십배나 증가하엿다한다 그러지아니하야도 여름철에는 로동자의버리가 업서지는목포항에서 이러틋 지리한장마(長霖)으로인하야 실업상태에빠져 그날그날버리를 하지못하는 수천에달한 자유로동자들은 전당할아도 전당품이업고 어찌할도리가업서 생활아국도로 위협을당하고잇다

그중에서도 죽교리근처이 만호동죽교리(竹橋里)등지를 살펴보면 수만호가족을다리고 조석을 넘기지못하야 끼니때(飢饉)로하여 아우성치는 소리는 목불인견이라하며 아프로령우가 더 속된다면 그들의 장래가 크게 우려된다고한다

悲痛에우는罹災民 ●

生肉生米로延命

宛然廢墟와가튼全州府一帶

本社全北特派員白安基記

백여만원 재산과 삼십여생명을 삼켜버린 금번전주의 수라장!재해를 치룬그잇흔날인 지난십륙일오후는 사만부민의 반파해민(半被害民)과반피난객(半避難客)으로 전주부내는 비장에 싸혀진 참담우에는 거리거리에는 사람사태엿다 전주천변 벌치는 쓰러진가슴을 웅켜쥐고 창천을 우러러 긴한숨을 내쉬이면서 내자식내부모 죽은몸둥이나마 보여달라는 저주의눈물을 흘리는수백명, 아-이무슨신의 작란일가! 지난 십륙일오후다섯시에까지 새로히 발견된 열세명의 사체 주인이야 꼭잇스련만 평평부러터진 발가숭이몸으로 뚝우에 비할개를벌리고 섬겨적하나로 잡바젓다 어린아이 시체에는 각학교선생들이 혜여나 내학교생도나 아닌가하고 차저오고 뚝우를방황하는 수백의 사체주인들은달려와다가 얼골과 체내(體內)의특징을차저보다가 실패로 도라가는 사람!"이저식아 이게 웬일이냐"하며"죽은 몸뚱이를껴안고잡바지며 울부짓는 광경은 참아눈뜨고볼수가업다 한편에서는"죽은사체를 운반하는 상여후운!"들것수상!"으로 공동묘지로떠나는광경 처처하차피잇는의문객의 조객(弔客)으로 비애의 저긔압은 전주부를 여지업시 울리찻다 문허지침을뜻다가 팜이갯해져나오는 사체 완연히 전시(戰時) 상태에 몰린여기 천변에는 삼천여호 집수가유의 물에 저진 창옷(飾入衣)과 경옷 이불을 빠러말리는 수백명의 빨래군과 저가 저나는듯이부 뵈이문옹벽에 떨어내는광경 서정(西町)에서다가정(多佳町)방면 내가(川邊)에 눈만치 스크린에서뭇은 한마의 사진을 본는듯 재후(災後)의비풍경(悲風景)을 연출하고잇다그리하야 본시부터 극빈생활을하든"반동편"도잇지마는 그날그날 생활에는위협을 그다지느기지안튼 사람들도 금번수재에가오과의복 심지어 세간까지 다 물에떠나려버리고 외상 쌀이라도 어더 로천에서"단지밥"이라로 하여노코는"견건이"(饌반찬) 가업서 맨밥을 먹게까지 되여잇스니 전주시내에는 새거지가 갑작히 천여명이 나게되엿다 그자는부내에서 약집으로 정 떠러저잇는 재해가우심한상관면신리(上關面新里)를 차저러니 그곳주민들은 무슨 구세주나 맛난드시 달려들어 수재당시 이야기를 다옹피가러 말하면서

참으로 오륙십평생에 처음당하는일입니다 이십여호 동민들은 십오일오전주시경 들어오는 탁류에 놀내여 뒷산으로 올라가보니 그때는벌서산과 들이평양이엿슴니다 그래서보래뿐아닙니까 지금은 산과로 시는바위가려 하면서 목매인소리로 뚝위에서는 눈물이비오듯하다 그후부터는 먹을것이업서 헤매이든중에 마침 홍수에 떠내려온 오이마리"황소"가 나무에걸려잇는것을보고 동리사람들은 "소"를 건저다가 생고기로 배를채웟다하며 그중에도 전주부내에 멧면친구의 도음으로 쌀말이나이 동리로 드러오면 밥을 만들기전에 비겻내것 할것업시 생쌀로 서로빼서다가 먹어 버리게 되다하니 이참경이야 무어라고 형언할수가 업다 봉사구호반은 준비 해가지고간 약간의 빵과 본사긔증의 약품을 주위연후로푸러준후 도라왓다

水害地三浪津에 五百餘病者續出

三浪津에선救濟米를配給

【三浪津에서特派員鄭水讓十七日發電】삼랑진(三浪津)리재민삼천이백명은 수해된이후 육일구호는 잇섯스나 대부분은 굶주리고잇는 현상이엿는데 십칠일아침에 경남도청으로부터 보내온 구제미(救濟米)로써 어른은 한사람아페 하로에세홉 아이들은 두홉식으로 이천구백오십륙명이 오일분을 분배바덧다 십칠일아침까지 발생한병자는 오백륙십명이나되는데 그가운데서 적리(赤痢)가 한명이잇스나 이뒤 갈종의 전염병이 발생될우려가 만타

락동강의 물도 시간마다 상쇄치식 주려서십칠일 오전열한시현재로 삼랑진수위는 칠미돌칠십팔이엿다 경남도내의 침수된전답오백륙십정보는 수확이 전연 업게될모양이라한다

金海支局醫療班 羅災民에施藥

【金海支局特電】본사김해(金海)지국의 의료반(醫療班)은 김해의사 리병일(李炳一)씨를데리고 험한 물결을 무릅쓰고생림면(生林面)상동면(上東面)의리재민의 감사를 바드면서 일일히 치료를 하여주엇다. 빈궁한 리재민 사백오십명은 식량이결핍하야 급히 구제의손이 미처오기를기다리고잇는 형편이다 아밧게 이북면(二北面)에도 팔백오십가량 구호를 바더야될 리재민이잇다

馬場町水害에 靑年團員活動

저번수해에 시내마장정(馬場町)일대에도 일백사십여호나 침수되엿고 부근일대는 교통도 두절되엿섯다 그런데 시내각단체에서는 마포(麻浦)와 뚝섬(纛島)의 구호에만 주력하엿고 이방면에는 미처 손이 뻣치지못햇다한다 그러나 부근 신설정에잇는 형제주점(兄弟酒店)에서는 쌀세가마니로 밥을지어 오백여명에게 밥을 대접하엿고 마장청년단원 이십명과 북부청년단원 다섯명은 지난십삼일 십사일 이틀밤을 철야하며 활동하엿다

白頭山探險團一行 十八日曉京城着

惠山鎭에서 李相昊特電

【惠山鎭에서 李特派員發】백두산탐험의 대업을 감행하고 무사히 귀로에올른 탐험단일행은 혜산진에서 그곳관민(官民)들은 물론이요국경을 넘어서 장백현(長白縣)에서도 멀리 탐험단을 환영하기 위하야 그곳유지등이 한자리에 모혀서성대한환영회를 열엇섯다 그리고지난십륙일밤에는 다가기 려사(旅舍)에서 고달픈 몸을 쉬고 금십칠일에는 마침내 경성을 향하야 개선하는날이다 십칠일아침네시에 귀착하야 개선의 준비를하고 동여섯시에 자동차로 혜산진을 떠나서 경성으로향하엿다 그런데 경성역에 도착하기는 십팔일오전일곱시이십분경각이이다

千三百餘名罹災民 各面當局에收容中

水魔에蹂躪된金海郡集計

今後의對策은全無

【金海】지난십일일 오후두시부터 나리는비는 십삼일까지 나리게되자 김해군내각처에는 또다시 물소동을 이리키는중 더욱히 락동강물까지 증수되여군내에 일일히 조사한바에 의하면 경작지、피해침수제방결괴는 물론 수해리재민이 일천삼백사십명에 달한다는바 상세한 수자는 다음과갓다하며 금후의대책은 전연업다

▲生林面
流失家屋 四戶 全潰四戶
半潰 一八戶 浸水二〇戶
耕地被害 八二町步
堤防決潰 五〇間

▲上東面
罹災民(收容人員) 一七二名
全潰 五戶 半潰 一六戶 床
上浸水 四八戶
耕地被害 三五五町步

罹災民收容所	炊出所		
梅里	炊出所	一個所	五五名
甘露里	同	三同	四四名
余次里	同	一同	五四名
大甘里	同	一同	三六名
上東面計	八個所		一八九名

▲二北面
耕地被害 五七一町步
罹災民(收容人員) 八七八名

全州府民中에서 義捐金募集키로

各町總代會議서決定

【全州支局電話】전주의 수해리재민중 구제하여야할 일천칠십호에 오천삼백여명에대하야 어떠케 구제하겟느냐하는것을 토의하기위하야 십륙일밤팔시부터 전주부내이십일개정의 정회총대부총대들이 모히여 토의한결과 위선 전주부민들중에서 가능범위안에서 최대한도의 의연금을 모집하여야할것이라고 의견이일치되여 십칠일부터 각정회에서의연금을 가가호호에서 모집키로 하엿다 또 부청에서는 제방교량의 긴급개수와 긴급위생시설에 대하야 상주하얏다 그라하야 우선은 전주시내와 완산정(完山町) 간에 노이엇든 완산교가 류실된 곳에는 가교(假橋)를 가설하여 십칠일부터 사람만은 통행케되엿고 도한편으로 시내의 갈우물을 정화키위하야 소독약 이천병을 갈우물에 뿌리엇다 또 구제비로써 침수되엿든쌀 일천삼백가마니를 보통이면 한말에 일원륙십전하는것을 칠십오전에 팔기로되엿섯스나 침수되엿든쌀에는 악균이잇다하여 경찰에서는 판매를 중지식히고악균유무를검사중이다

忠北管內의水害 槐山、堤川이尤甚

【十七日正午警務局着電】이번수해에 충북괴산(槐山)군의 참상은 매우심하야 십칠일정오까지 판명된피해는 다음과갓다

◇…水亂一過後의慘狀 ❶浸水된 三浪津市街 ❷決潰된 三浪津安臺堤防 ❸罹災民에게 食糧을 配給하는本社救護班 ❹金海郡上東面所附近에잇는 蘇樂橋의 破壞된慘狀 ❺災後全州罹災民의爆衣光景

京畿道管內의 罹災民救濟策

경기도 지방과(地方課)에서는도내의 수재상황을 방금조사중인데 각군에서 조사한 보고가오 즉사망자 삼십사명 부상자 구명 합계이명의 손상이실로륙십일명의다수에달하엿다 또가옥의 피해는 류실된것이 륙십팔호전괴된것이일백사십구호 반괴가이백사십칠호 침수가옥이 일천륙백사십칠호의 다수에달하며 충북판내중에서도 제천(堤川)과가티피해가가장심한 터이라한다

질림 신괴하게근치된다 림질에복약 オネゴノルヂン 京城府大門通一丁目 大同藥房

는것을 종합하야 특별히 구제사업를 해야될 사람만 가려서 오막사리를 지을 재목을 사주고림시로 생활비 될만큼한 정도로구제할 방책을 세우게 될터이라한다

平壤軍力戰惜敗 凱歌는京城軍에

33對30의記錄的接戰으로

第一回京平水上戰績

【平壤】우리水上競技界의俊銳를總動員하야 京城、平壤兩都市의覇權을決하는 第一回京平對抗戰은 本社平壤支局後援아래 十六日午後一時부터 平壤府營풀(廿五米短水路)에서 本社平壤支局長金炳淵氏의 開會辭가잇슨後 平壤軍主將鄭安鼎君의 歡迎辭와 京城軍主將李熙鍾君의 宣誓로서入場式을 마치고 競技는二百米自由型릴레ー로부터 開戰되엿다 이날水溫은二十一度 無風의良好한 컨디슌아래 力泳!또力泳!實力伯仲한兩軍은 最終種目인三百米메드레ー릴레ー를行할때까지 三十對三十의同點으로 勝敗의關鍵을豫斷키어렵드니 平壤軍戰運不利하야 三百米메드레ー릴레ー에 失格되여 三點의差로 第一回의覇權을 京城軍이掌握하야 本社寄贈의 優勝楯은京城軍에게, 關西體育會寄贈의優勝盃는 自由型릴레ー에 一着한 平壤軍에게 各各授與하니 때는午後五時三十分、記念할第一回京平戰은 이로서圓滿盛況裡에幕을 다치엇다 이날京城軍의引率者는鷹洞氏와徐銅奉氏의籌水者救法、人工呼吸法其他數種의 實演이잇서 一般觀衆의好評을바덧다(戰績은朝刊에)

中等野球第五日經過

全日本中等野球大會 第五日의第二回戰은 十七日午前九時부터甲子園球場에서 열린바 이날經過는 다음과갓다

嘉義農林	0 5 0 0 0 0 0 0 0	5
育英商業	0 0 0 2 3 2 0 0 0	7
鳥取一中	1 0 0 0 0 0 0 0 0	1
岐阜商業	0 0 0 2 0 0 0 4 A	[illegible]
靜岡商	3 1 0 0 0 0 0 0 0	[illegible]
京阪商	0 0 1 0 [illegible]	4

安邊에서再活動 靑年四名또檢擧

十五日午後、京畿道警察部에서

【安邊】경긔도 경찰부(京畿道警察部)에서는 마도순사부장(馬渡巡査部長)외 수명의 형사대가월여전에 안변에 출동하야 사상게청년 김칠성(金七星)외 두명을 검거하야 가지고 도라갓다 함은 긔보한바이데 취조에따라 사건은 점점 확대되엿는지 지난 십오일에는 또다시 형사두명이 안변에 나타나서 안변서의 응원을 바다가지고 급합히 활동을 개시하더니 동일오후 열시까지 안변읍내에서 황철호(黃哲鎬)김효선(金孝善)황순영(黃順永)(女)과 안변여전의 박모(朴某)등네명을 검거하야 안변서를 하는도모양인데 취조에따라서는 또다시 의외의 검거나잇지 안흘가하야 심히 주목되는바이며 이미 검거된그들은 불일간 또다시 경긔도경찰부로 호송될듯하다고한다

普文合格者 朝鮮人은卅三名

금번도보통시험(普通試驗)은지난칠월부터 경성공립중학교에서 보엿는데 수험지원자총수 일천일백이십구명이나 되엿스나 제일차시험끄테 일백팔십사명이합격되고 제이차시험끄테는 오십구명이 겨우합격되엿는데 십칠일에 구술시험을 보인결과 오십구명이 합격되엿다 그가운데서 조선사람은 삼십삼명이고 일본내지인은 이십륙명이엿다 조선사람의 합격자는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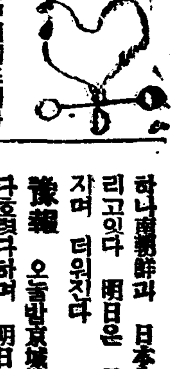
慶南 金英世 全北 朴世英
平南 金鍾基 全北 崔東燮
平北 金官俊 忠南 吳世權
咸北 卜利孫 全北 崔成祚
慶南 金琮守 慶南 李良甲
慶南 趙吉來 平南 李昌鎬
平北 李在一 咸南 崔伸一
全南 朴八千 平北 金燕元
咸南 金昌煥 忠北 南基鴻
江原 黃用鎬 京畿 兪鳳鎬
忠南 李暢圭 全北 李東斗
咸南 劉長洪 忠北 金丙基
黃海 李宗奎 慶南 陳斗鉉
京畿 李斗熙 全南 金鍾盛
平南 崔瑞國 全北 林圭用
全北 金重鎬 全北 李起馥
平南 鄭南[illegible]

今夕(十七日)四日間 오림픽 第一報公開 團成社

孫君記念體育館實現無望

손긔정(孫基禎)군의『마라손』제패를긔념하기 위하야 이를 기념하는 체육관(體育館)을 건설하라는여론이 이러나서 지난십륙일 오후다섯시에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그발긔회를 열려이라한은 긔보한바이어니와 그동안관계의홍지로인하야 이에대한집회를못하게 되엿고 따라서그실현은 보기어렵게되엿다한다

天氣予報



概況 颱風은南中國에드러가고잇스며 低氣壓은 日本本州의東海上及樺太附近에잇다 高氣壓은滿洲、朝鮮으로 向하야 놉하가고잇는데 그勢力은弱하다 滿洲、朝鮮은 日氣가良好하나 日本內地는 흐리고잇다 明日은 日氣가조와지며 더워진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개엿다흐렷다하며 明日도갯다 京畿道全區도 개엿다흐렷다한다

昨日 最高 二六度八
同 最低 一八度
今朝 最低 一八度
今日 正午 二七度四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創製

血液의循環을利用하는 淋疾의 患部直達療法 新發見

從來에考慮되어使用하고잇든外用局所銀劑는尿道一部分의炎症에對하야作用함에不過하다。또使用上非常한苦痛과不快不便을同伴하는것은患者가가장頗惘하는바로서往往淋菌을內部에侵入식히어危險症을併發하는境遇가만타 그러나パロール는京大化學研究所의世界的發明『特許金屬オルガノゾル製法』과最新化學コロイド化學의應用에依하야從來에不可能하든金屬銀의內服化를達成하야그特有한ブラウン運動에依한深達作用으로써銀을血管淋巴管에吸收식혀서血液에게强烈한殺菌效를주어서그循環을利用하야어떠한기픈患部에까지든지浸透하고尿道前海綿體攝護腺副睾丸膀胱腎盂等의患部에全面的으로徹底的作用을하는故로男女를不問하고또淋疾이初期에잇서서는症狀이內部로들어가서淋疾性諸疾患을이르키는것을豫防하면서治癒되기때문에治療領域이局限도되지안코急性症狀에도確實히的確安全할뿐만아니라不便不快가업고治療期間을短時日로短縮식힐수가잇다。

이것은パロール獨特한新治療法으로서臨床家와患者의實驗에依하야絶對的好評을博得하는바이다、即パロール는京大化學研究所內에서研究하여서그特許施設의理化學的操作으로서嚴密製造되는我國最高權威의治療劑으로서一般市販의治淋藥과選擇이다른點에注意하시라詳細는文獻을參照하시라

▲全國有名藥店에잇다、萬若品切時에는當店으로直接注文하시오 代金引換或은振替로注文하면送料不要、郵券代用도可

藥價 一圓八十錢·二圓五十錢·十圓 送料 內地十五錢 朝鮮四十五錢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 大阪市東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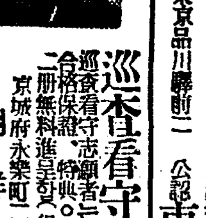
製法特許 パロール

新刊『淋疾と其の療法』四六版、四十餘頁、詳細圖解入冊子이라고題한 希望하시는분은新聞名을明記하신後、藥書로發賣元에申込하십시요(一名一冊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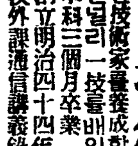
無代 進呈

生徒募集 (晝夜) 京城實踐簿記學院 ◇簿記珠算科。タイピスト科九月新學期開始 ◇短期修業官廳銀行會社支店就職紹介 (學則送呈) 京城府太平通大漢門橫入(電本四、七六一番)

日、英、米、獨、佛、五箇國特許 器械鍼療法講習會開講 實地科、通信科、速成科、特典全國無檢定開業 奧村療法學院 大阪市西區江戶堀下通五丁目 電話土佐堀二八四三番



巡査看守 (試驗義錄) 朝鮮警務學會 京城府永樂町二丁目一番地 電本2 三〇三〇番



◎失職은技術家에업다 本校는實地로有用한技術家를養成할目的、學力年齡을不問하고隨時로入學을許可함 ◎本科三個月卒業 ◎創立明治四十四年(就職紹介、學則送付) ◎校外課通信講義錄도發行함 ◎東京品川驛前二 (公認)東京寫眞學校

懸賞 廣告圖案懸賞募集 一、廣告의種類 二、廣告圖案에表現될要項 三、募集期限 昭和十一年九月十日까지 四、懸賞額 五、發表 昭和十一年九月廿五日以後 仁川府海岸町三丁目 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 兼趙俊鎬取引店

若草映畫劇場 ◇八月十六日부터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海洋劇 八點鐘 全七卷 大人五〇 小人三〇 P.C.L映畫 人生初年兵 歌の戀 トッハ・プット

桃花劇場 時代劇 國定忠治 西部大活劇 西部의荒武者

第一劇場 天保安兵衛 黑猫로매오 流線怪盜列車 十字軍

優美館 國際ニュース 染血の鬼 石山稔監督作品

時는今!

仁丹二十錢分으로 白米二俵가當籤됨

仁丹

胃腸의增强

健康은먼저胃腸强壯으로出發합니다、特히夏季는胃腸運動이鈍해질때이므로萬全을期하야 恒常 그促進을計圖치안허서는아니됩니다、仁丹을常用하면胃腸의機能을正規的으로하고 榮養을促進하야 全身은顯著히 活潑하게되여 潑剌한生活力을充溢식힙니다 特히胃腸病者에게는不可缺의特能

傳染病豫防

炎暑時는 치푸쓰、호열자等傳染病의猖獗季입니다、衛生施設에不備이적지안흐므로 衛滿各自의自衛豫防의必要를 切實히느끼는바입니다。仁丹은胃腸을强健허하고 榮養吸收를充分히하야 健强體를만드는것을目的으로하고 此等傳染菌에의 抵抗力을 [illegible]

咽喉衛生

여름의半島特有한乾燥한것과 더욱이猛烈한塵風에 咽喉衛生의不充分으로 드디여는 本格的呼吸器病에侵犯되는例가 特히만습니다、仁丹은 입에너흐면 第一먼저 이 咽喉衛生을 完全히하기위한 藥效를爽快한感이잇스면서도 遺憾업시 發揮하야 殺菌에 淸香에 더말할수업는 特[illegible]必要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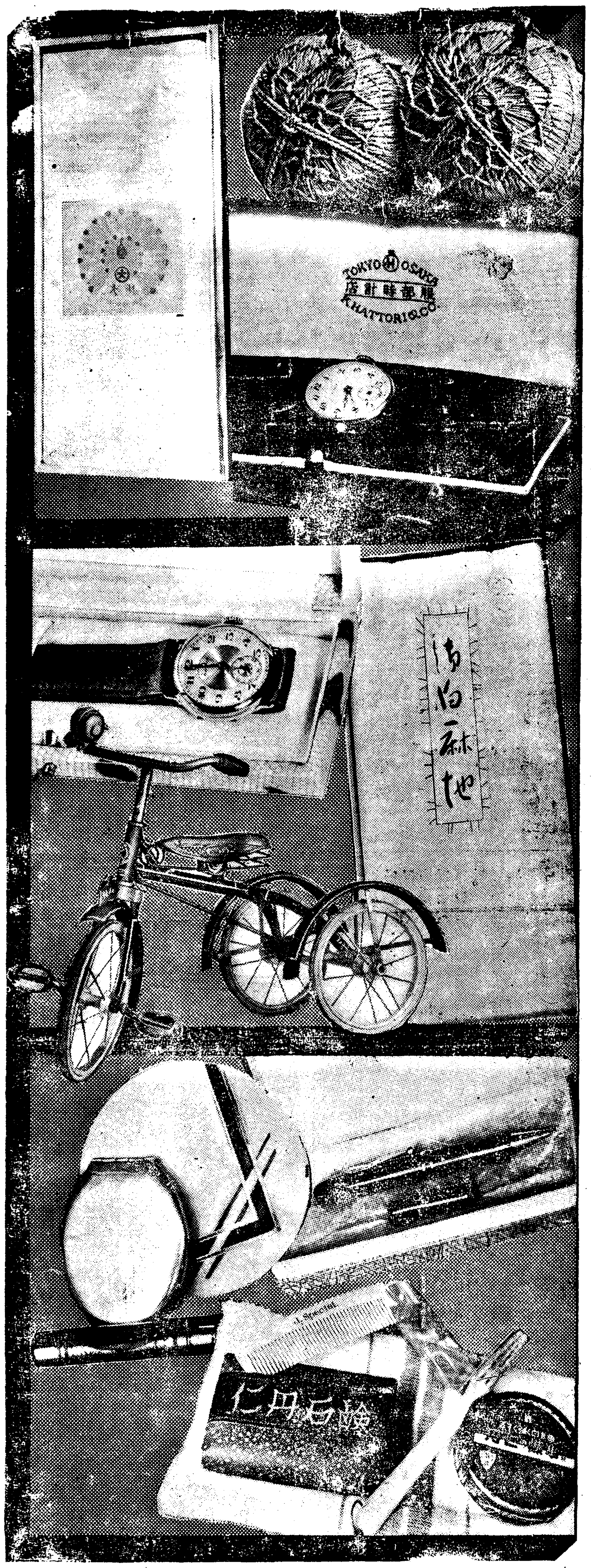
銀粒仁丹定價
御試用分(壹五十粒)十錢
富士容器附(三百二十粒)二十錢
滿洲容器附(四百粒)三十錢
家庭容器入(九百粒)五十錢
御徳用分(一千粒)五十錢
御徳用[illegible]一圓

仁丹의必要季에 贈할 이大賞品

一等賞品 右品中有意의一品

二等賞品 右品中有意의一品

三等賞品 右品中有意의一品



四等賞品 粗品進呈

알기쉬운懸賞내는法

問題　只今가장人氣잇는銀粒仁○ (右○中에드러가서 適當한文字는 무슨字인가)

答案　仁丹定價二十錢分의外函裡面에答案을記入하야四匁까지三錢切手를貼付하야送付할것

答案送附先　大阪市東區玉堀町仁丹懸賞係

期間　自八月十日 至九月末日 五十日間

抽籤發表　十月中旬 (朝鮮有力新聞紙上)

賞品
一等　白羽二重生地一反 白米二俵 金側腕時計一個 中有意의一品　拾名
二等　白麻生地一反 子供用自轉車一台 クローム腕時計一個 右中有意의一品　壹百名
三等　샤ー푸펜실一本 케ー쓰入一個 入浴用品一揃 御化粧用品詰合一個 右品中有意의一品　一千名
四等　粗品進呈　一萬名

大阪・森下博營業所

산괴록

쉬고 썩고 버레나고 반빗간이 수라장

아까운음식을버려서야쓰나? 미리부터단속해두자

요사이는 반빗간과 부엌안을 자조 보살피어야 합니다。 그러치 안 해서는 쉬는 것, 상하는것, 곰이 피는 것, 버레가 나는 것등으로 아까운 가용이나 음식을 모도 버리게 됩니다。 아니 자조 보살핀다니 어떠케 합니까? 쉬고 상하고 곰이 피고 버레가 나는 것을 안나게 할 수는 업지 안습니까? 그러나 무슨 물건이든 깔끔하게 매만저 노흘수록 칠석 덜 버리게 될뿐이 아니라 또 이미 버리게된 것이라도 속히속히 처치를 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또는 그러케 안 되게 하는 예방법도 업지 한축 다소 귀찬흔 것을 무릅쓰고 그런 예방을 해두어야만 합니다。

◇……쌀

조그만 살림에는 한목 한달이고 두달이고 그러케오래 먹을 량식을 사올것이 업시 한 일주일 내지 열흘가량 먹을 량식만큼 사옵니다。 낫말로 사오는것이 손해가 되겟거든 애초에가마니로 사서 미터운 싸전에 맛기어 노코 조금식갓다가 먹습니다。 하여튼 쌀담은 그릇은 해볏치 잘쪼이지 안코 서늘한 처소에 노하 두는동시에 그그릇가장자리를 항상 깔끔하게 훔처 두어야 합니다。 이미 쌀이 묵어 버레까지 낫것은 끈커기업고 문내가 나서 그냥 밥을지어 먹기는 어려우닛이니 팟과 조를 석거서 잡곡밥으로 짓거나 찹쌀가루를 조금 서거 떡을 쩌먹는것이 조흡니다。

◇……간장

간장에는 베헌겁으로 주머니를 짓고 거긔다가 겨자(芥子)를 담아서 너허 두면 곰이 피지 안습니다。 또 장항아리나 장통은 잣구 건드릴수록 곰이 피기도 쉽고 또 더심하게 피기도 쉬우니 될수 잇는대로 곱게 노하 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얀곰이 피엇거든 고운체로 바치고 계란(鷄卵) 껍질을 엣개 너허서 찝니다。 다지 넘어과히 찌다가는 고만 장의뒤스맛이 끔찍하기 때문으로 그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초

초에는 소금을 조금 구어서 너코 흔들어서 마개를 막아 두면 맛이 잘변치 안습니다。 이미 맛이변한 것은 걸러서 물에 타가지고 도지리나 지직자리가튼 것을 씻어 내면 아조 훌륭하고 또 때물이용이 됩니다。

◇……된장

된장은 가시가 안 나도록 꼭 싸매 노하 두고서 버치 쨍쨍하게 날때 떠오되 떠온 뒤는 꼭 다두거려 노코 다시 봉합니다。 그려고햇볏츨 쪼이려거든 고운생사천겁이나 철망으로 봉해서 쪼입니다。 장맛이 신때는 생소나무의 껍질을 벗기어 너흔즉 메칠뒤에는 신맛이 업서 진답니다。 곰이 피거든 고부분만 얼른 똑 떼내어 버리도록 하는 것이 조흡니다。

◇……사탕

사탕은 석지 안는 대신 개미란 놈들이 덤벼들어 버리기 쉬우니까 두껑을 꼭 다더 두어야 합니다。 개미가 우물거리고 잇는 것은 정한 조히에 쪽 펴 노코 큰못을 씌서서 데여섯개 석거 노흐면 개미가 다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그 사탕을 그냥은 먹을수 업습니다。 물을 조금 타고 끄려서 시로프를 맨드는 것이 헤롭지 안습니다。

◇……우유

우유는 냉수에 담거두는 것이 제일입니다。 먹다가 남은 것은 「소다」를 조금 석거서 둡니다。

애기들을 맨발로두면 『편평족』된다

이러케되엇다가는큰일 어머니된이는주의할일

편평족(扁平足)이란 어떤것인가? 우리가발을땅에 디슬때 보면발바닥이 다땅에닷지안코 그림에서보는바와가티 안쪽으로를떠잇습니다 족발은뼈가 볼족나오기때문에 그밑은뜨게되여 땅에닷지안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편평족은 그곳이떠잇지안코그곳까지 땅에붓게 되발이니 이편평족이되아이가 얼마나 신체에나뿐영향이 잇는것인가는다음의기사를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편평족이고아니것 그리고 그정도를알라면 발바닥에먹칠을하고 힌조히를마루에 깔고나서 그우에올나서서 찍힌자리를보면알수잇습니다

◇

여름철에는 석굴어린이는 모다가 맨발로 신도안신은채 뛰여다닙니다 이것은 얼는보기에 건강에대단히 조흔것가태서부모들도 그냥두고 어린이자신도아모러치안케 생각할뿐 아니라 도로혀 질겨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대하야 요사히 미국칼루-슨 카-레-」박사는주목할만한 경고를발표하고 어린이들의 맨발로신도안신은채 뛰여단이는것은 잘못이라하얏습니다

여름철에 맨발로 뛰여단이든 어린이는 신체가 튼튼한것가트면서도 나종에는 밧듯이 편평족(扁平足)이되여 버리는것입니다 이것은 맨발로뛰라난 어린이의 전부가 거의편평족이 되여 버리는것을 보아서 틀림업는 사실입니다 구라파 대전쟁때는 식골서 모집한 병사는전부가 이 발이엿답니다 그리하야 전쟁에 그냥 나가지 못하고 얼마동안 정형과에서 치료를 바려가지고 꼿친뒤에야 전지에 나가게 되엿답니다 사실이편평족인 발로는 거러단이기가 보통발의 명곱 쟁이나 더 곤난하고 힘든답니다 어린이가 한번 편평족에 걸이면 몸전체의 골격이틀여저서, 어깨는 등그러지고 등대뼈가 굽어지며, 가슴이좁아지고 머리가들리며 배가북처럼 뚱뚱해지기 쉬운것입니다

그리하야 변비(便秘)와 소화불량등의 무서운병이 병발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편평족에걸린 어린이는 의사도 갈쪽가티는 꼿치지못하는것입니다。 [redacted]이것에걸리지 안케하기위하야는 [redacted]되시는분의 주의가 절대[redacted]필요한것입니다 첫재 어린아이가 조곰식 거름을것게될때부터 발에꼭 맛는신을 만드러신겨야합니다 이신은 신바닥이 넓적하고 두거운것으로 만드러서 땅을드듸여도 꾸불어지지안코 땅바닥의 울퉁불퉁한것이 발에영향되지 우토록하야 발바닥을 보호하지안흐면 안되는것입니다

신이라는것은 치장이나 발을 그저맵시주는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니 모양보다도 발이편하고 알맛는것이래야합니다

幼兒榮養上의危機와그對策

애기기르는데 세고비가잇다

城大小兒科研室 李聖鳳

어린애를 기르는분은 누구나다 경험하는바이지만 어린애기처럼 기르기힘들고 애타는것은업습니다 진정한모성애를가진분은 여기에서 늙고맙니다.

어머니의놀라운 애정과정성! 그러치만 그정성을혹되이하고 세상을떠나는 애기들이 얼마나만습니까

여기서 부모된자는 반드시 자기반성이잇서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그정성, 그애정만으로 애기를기를것이아니라 그보다먼저 애기기르는법을 좀더연구하고 배우지안허서는 안될것입니다.

여기에 진찰하신 리성봉(李聖鳳)선생은 현재경성제대소아과연구실에서 다년간이방면의 연구를기피하야 이 방면에 제일인자인 관록을가진분인만큼 여러분께 실지로 참고될것이만흘줄압니다.

소아의 발육하여가는 상태를 보면 어떠한아이는 각시기를 통하야 무난히 씩씩하게 튼튼하게 성장하지만 이와반대로 어떤아이는 각금 중한병에 걸리며 혹은 또 가정의 여러분은 모르나 우리소아과에 가볼때에 발서 어떠정도의 영양해가 발생되것을 종종보게됩니다 이와가튼경우를 잘판찰해보면 유유아에는 대개세시긔에 흔이 병에걸리기쉽고 만일 이세시기에 무병하게지나서도 항상 안심할수업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세시긔에는 영양상 그릇되기쉬우며 만일 부주의 해서 양육을 그릇하면 신체의 저항력이 감퇴 되여 일후에도 병에 걸리기쉬운 소질을 맨든다고 볼수잇는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점점자라서 크게될때까지대개 세위험한시기 즉위험한 고개 셋을넘어야 되다고봅니다 물론우리가 아이를 양육할때항상주의해야되지만 그런중 지금 말슴한 세위험기에는 특히주의하고 양육하서야됩니다

그러면이위험기는대체언제오는가또그시긔가온때는 어떠케할것인가에대한 대책을평소부터생각하고 늘마음에준비해두면 비교적 어려지안케 순조롭게 아이을 튼튼히 양육할수잇다고밋습니다 이런의미에서 본문제로여러분께 말슴드리려합니다

◇

제일의 위험기는 생후부터삼칠일안에옵니다 아이낫지 이삼일이되면 여러분도 아시는바와가티 그아이가 어머니젓을 먹게되는데 만일 그어머니젓이잘나지안흐면 만일 우유로양육할까 루우유로할까 혹은 밥물로할까 가한은 큰문제가생기게됩니다 또하나는 젓은잘나도 젓이맛지안는다든지 혹은 각기의 의심이잇다고 모유를중시하는이도 조흥잇습니다 이것이 오르냐 그르냐에대하야는 다음말슴드립니다 아이는 어머니의젓꼭지(乳房)로부터 자신의영양되는것만먹는것이아니고 모친의 애정도동시에 먹는다고말한 시인도잇지만 우리조선에도 옛날부터더아이는 나은정보담 기른정이더 두텁다는 말을보아도 젓과동시에 모친의 애정도가티 먹는다고볼수잇습니다 이것으로 생각해보면 모자의애정을 두텁게 흥은 열게하는데 제일의위험기는 이것을결정하는데도 실로 중대한시기입니다

다음 영양상으로 보면 아래와갓습니다

젓이 맛지안는다 흥은 각기의 의심이 잇다고 우리를 차저오는 부인들이 잇습니다 또 의사로부터 젓의성분이 부족하다 흥은 『비타민』이 부족하니 큰병원에가서 젓을 검사해보라 또는 젓이 불량하니 젓을검사해보내라고하는 분도잇습니다。 그런대 어머니젓이 조코 나뿐것을 검사하는법을 지금까지꾸준이 연구해왓습뿐더러 지금도 계속해연구하지만 현금의의학으로 아직간단하게 즉 시험관에 모유를너허 방응을 본다지 또는 현미경가튼것으로보아 젓이 조코 나뿐것을 결정할수 업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큰병원을 물론하고 아직은 검사하는데가 업습니다。 그러면 젓의량부를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느냐하면 어떤 경우던지 아이의 발육상태 건강상태를보고 판단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피부빗치조코 살이토실토실찌고 잘놀면 그아이의모유는 조타고볼수잇습니다 그런대 여과석중히하나말슴드릴것은 아이에게 아무이상이업는대 다만대변에몽글몽글한것이석기고 흥은 대변비치푸르디 이것은 꽉내것이 불량한탓이라하고 오는분이 잇는데 그실 리상으로는 책에 써잇는것가티 누른 고약과가튼 대변이면 물론 조흐나 그런대변은 비교적 드물고 몽글몽글하고 푸른대변을 보는아이가대단히 만습니다

개에게끌려 이만오천마일

우울증(憂鬱症)에는 려행하는것이 제일조타는의사의권고를바든 미국『칼리포니아』주칼·린드-아라는 사나히가케케묵은짐차를 개열한머리로하야 끌게하고 이만오만마일의 려행을 떠낫다고합니다

칠월칠석날

—견우직녀가맛나는날—

여름의傳說童話

(一) 康承翰

옛날부터 칠월칠석날이되면 하늘나라에서 견우라는 실랑님과 직녀라는 색시가 가마귀와 까치들이 노흔 다리를 건너서 맛나 울어 그날은 비가 나린다고합니다 웨 견우와 직녀는 가마귀 까치가 노흔 다리우에서 울게되엿슬까요? 그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몃만년전의 옛날일인지도 모르는 오랜 옛날에 하늘나라 임금님에게는 아조 귀여운 따님한분이 잇섯습니다。 임금님의 따님은 어려서부터 베짜는것을 몹시 즐겨하여서 이름을 직녀(織女)라고 불럿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은 단하나인 이외딸을 금이야 옥이야하며귀여워하얏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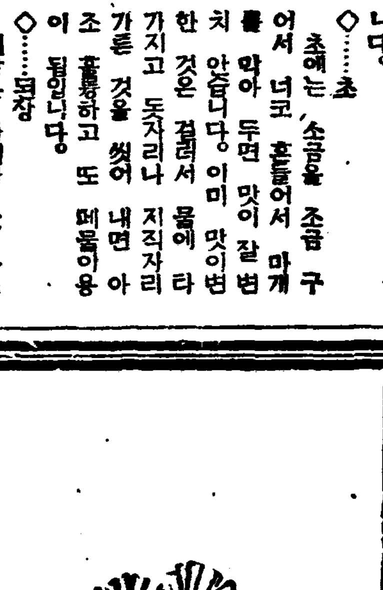
이때 하늘나라 저편에잇는 별나라에 아조 잘생긴 젊은선인이 하나살엇는데 그는 사시로 푸르러잇는 별나라풀바트로 송아지를 끌고다니여서 그의이름을 견우(牽牛)라고 불럿습니다。 견우는 송아지를 끌고다니며 늘 풀피리를 불엇습니다。

하늘나라임금님이 어떤날 노픈궁궐우에안저서 압문을 열어노코 멀리 별나라를바라보시다가 별나라풀바테서 피리를불며 송아지를 먹이고잇는 견우를 보앗습니다 한번 임금님이 보고 견우의 기운잇는 얼골과 몸집이 당장에 마음에 드셧습니다。 그래 임금님은 직녀와 부부를삼을마음이 낫습니다。 임금님은 서슴치안코 견우를불러서 그말을 하엿습니다 이말을들은 견우는 몸시기뻐하엿습니다。 임금님의 부마(사위)가 되라는데 누가 마다하겟습니까? 그리하야 곳 잔채스날을 정하여노코 모든 잔채준비를 하기 시작 하엿습니다。 견우는 잔채스날 잡어쓸 송아지를 정성드려 먹이고 직녀는 밤에도 등잔불을 도두고 부지런히 고흔 베를 짯습니다。 하늘나라 선인들이 모두 부즈런하게 꼿주직녀의잔채준비를 하는동안에 마치내 기뻐고 경사스러운 잔채스날이 다다랏습니다。 실랑 견우는 머리에 맵씨잇는 사모를쓰고 그늠늠한 몸에는 도포와 관대를걸치고 손에는 모선을들고 왈냥절냥 말을타고 직녀가 기다릴 궁궐안으로 들어갓습니다。 견우가 말에서 나려 허리를굽혀 절하자 어여뿌게 단장한 색시 직녀가 한거름 두거름 조심조심이 걸어나왓습니다。 직녀의 머리우에는 꼽다란쪽두리가 씌워잇고 저구리는 초록빗이오 치마는 다홍치마엿습니다。 잔채는 하늘나라에서 전에업든 큰잔채엿습니다。 하늘나라 선인들은 모두 견우직녀의 잔채를 부러워하엿겟지요。

잔채가 지난후에 견우와 직녀는 아조 재미나게 살림을 시작하엿습니다。 그러나 며칠안되여 재미난 살림은 쓸쓸해 젓습니다。 왜 그러케 되엿느냐구요? 그러케사내답게 점잔코 으젓하든 견우가 갑작이 버릇이 거츨어진것입니다。 전에 마시지안튼술을 밤낫마시어 얼골이 홍비치되게 취하고 하늘나라선인들을 못살게굴엇습니다。 술주정으로 날을 보냇습니다

그래 하늘나라임금님은 견우를 불러서 이러케 타일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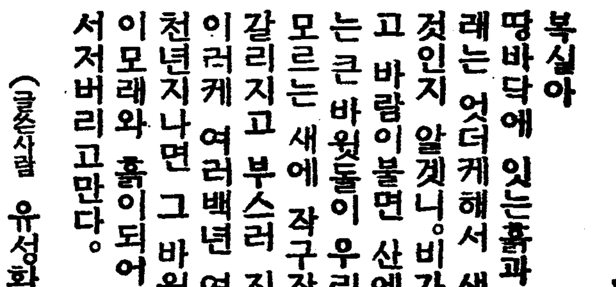
(계속)



복실아

땅바닥에 잇는흙과 모래는 어더케해서 생긴것인지 알겟니。비가오고 바람이불면 산에잇는큰 바윗돌이 우리가 모르는 새에 작구작구 갈리지고 부스러 진다 이러케 여러백년 여러천년지나면 그 바윗돌이모래와 흙이되어 업서저버리고만다。

(글쓴사람 유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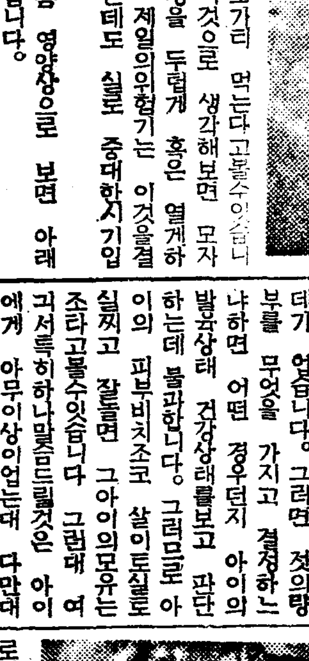


쑤세미물로되는 고급화장수

집에서도넉넉히된다

백화점이나 화장품점에서 우리의리하게 진열하여노흔 갑비싼 화장품만이 반듯이조흔것이란법은 업습니다 집에서 만드러쓰는것에도 그럴듯한것이만히 잇스니꼬리용을 하시는것이 어떠한니까

『헤찌마노수』라하는 고급화장료가 잇는데 이것은 쑤세미오이의물이원료가되것입니다 쑤세미로부터 화장수를 취하는데는 첫재 쑤세미가 너무 익어버리기전에 하여야합니다 쑤세미가 너무 성숙해버린뒤에는 쑤세미물은 나지 안습니다。 쑤세미줄을 굵은놈으로 골라서 뿌리다음으로부터 서너자까지를 물로잘지처버린다음 진흙가튼잡것이 못지안케하야 가워나 그러치안흐면 헌면도가른 잘드는 칼로짝끈허서 끈킨자욱을 물로잘시친다음 그것을 병에 꼬저둡니다 병에꼬질때는 비스룸이나 먼지가튼것이 들어가지못하도록 병주둥이에 탈지면(脫脂綿)을 씨우고 그우에유지나 하도롱(봉투만드는 누른조히)으로싸서 이것을 땅속에파서못습니다 무들때는 병이잡바지지안토록 노아야하며 일광이 바로쪼이지 안토록하야 두어야합니다 이러케해서 일주야를두엇다가 그다음날아침에보면 병속에는 제법나혼쑤세미물이 당겨잇슬것입니다 이것을 다른병에옴겨노코 다시무터두면 또그다음날 쑤세미물이 담겨잇슬것입니다 그저 물이하나도나지안흘때까지 계속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될수잇스면 쑤세미줄기를 칼로베기전에 여러번물을주어두면 더욱만히 물을바들수잇습니다 그다음에 바더두엇든 쑤세미물을가지고 다음과가티 화장수를 만드는것입니다

쑤세미물 두홉오작
붕사 칠그람
그리세린 삼작
알콜 이작
과산화수소 조금과 향수조금만 녀흐면 훌륭한 화장수가될니다

優良兒の榮冠は

母乳가나지안는분
母乳가不足한분
離乳期의榮養
母體의衰弱恢復

ラクトーゲン
락토-겐

락토-겐은粉乳의
代名詞는아닙니다。

락토-겐은我國最初의粉乳로서粉乳가업든開拓宣傳當時에잇서서는商品價보다먼저粉乳의宣傳普及에努力하엿습니다。其後類似品이만히잇지만依然粉乳라고하면모도가락토-겐으로생각하는분이만치만락토-겐은左便繪(實物紺色)으로서이以外의鑵은락토-겐이아니므로買入하실때는充分히注意하십시요

大阪 東京 乾卯食料品株式會社

慶百幾千萬의健兒를기루고・全國坊坊谷谷의어머니들에게서每日感謝의말슴을듯는것은品質의優良에明證하는것임니다。

매암이소리차저서

文學의 沈滯와 虛無的傾向
……最近東京詩壇에 關한 斷的片紹介……
③ 金龍濟

다음에 나는 多少의 流行的(?)詩人인 小熊秀雄의 傾向에 對하야 檢討하야 보고저한다。

그는 自己의 詩作法은『마떠드러버려라』主義라하며 他人에게도 그것을 自己宣傳的으로 勸告하는듯하다。

◇…**勸** 그러나 詩人의天才는 決斷코 蒼白한 顔色과 爛色한 입술에는 타오르지안는것이다。饒說多辯은 決코 詩人의 事業은 아니고 그것은 漫談家나 野談家의 일이다。特히 그것이 無秩序的 傾向을 띄인 小市民的 詩人의 個人主義的 小主觀의 觀念遊戲에 잇서서는 더말할것이 업다。그러한 一人獨斷의 浮薄한妄說로는 우리들의 思想과感情을노래할수는 업는것이다。『利己的인同時에 大衆的이고 虛無的인同時에 奔放하다함은?』그러나 무릇今日과가튼 時代에누구가 利己主義的이며 虛無主義的임을 免할수가 잇슬가?』라 그의『小態的存在』를 無批判的으로 追隨하고 讚美하고 雷同하는사람이 멧치나될가。그리고 그러한 詩人은 어떠한

◇…**種** 類와 程度의詩人일가。『思想이라는것』에 對하고『單純한 인데리로서의 觀念的理解밧게 가지지못한』只今까지 實生活에 無緣하얏든田木繁의『小熊秀雄에의公開狀』이잇슴인바 그야말로 是人의是人評이란 好一對라고 할수잇슬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田木繁이말한바『時代』는果然 具體的으로그러할가?『누구』라함은 全體어떠한階級의 누구를 指示함일가? 그것은 確實하게 彼等自身들의小市民的 個人主義的色感激을通하야서본時代의 色彩이고 彼等自身들의 敗北的階級的存在를 表現함에不過한다。

그러면 小熊秀雄의 一作品을 提示하야 具體的으로 批判하야 보자。『詩人所載인『푸로레타리아戀愛詩集』의 一聯의作品은보라 端的으로말하면은『푸로레타리아』는 이러한 손、조흔리作品은理解치못하며 萬一理解한때에는그의對答은『이것은 우리들의詩가 아니다。』라는것일것이다。그의 內容은

◇…**健** 全單純한 戀愛도아니고 우리들의 사랑할詩도못된다는 否定的抗議에不過할것이다。그原因은 어듸잇는가? 우리는 그것을內容으로서부터 檢討하야 보자。

이러한一聯의詩는第一이데오로기的으로低卑하고 誤謬이만타。다만우리들專門家的으로서볼적에 겨우그의技術的으로 巧妙한것은 볼수는잇스나 小市民的小主觀을 遊戲的 否端에放任하야 아모것도남는것이업다。이『푸로戀愛詩』中 最初의『戀愛』로서 感傷하라』를 보자。

政治를 일흔 靑年의
피로흔 焦燥를
慰勞하아주는 당신네의 사랑이여
女子는 男子의 苦悶을
사랑으로서 무덕주라한다
…………

라고서잇다。그러면 現在는 政治그것의 全然일허버러진는가。이곳에나온 靑年은 어떠한 靑年일까。그는

◇…**政** 治를 일흔者탐보다도 政治的立場을버린者가아닐까? 그의 사랑은 그를사랑하는 女子는 그對象되는 男子의 政治的生活(及그의立場)을 復活시기라하는 女子일다? 다음詩句는 그것을 알으키고잇다。

그러나 이詩에나오는 女子야말로 全體뿌르조아有閑夫人일지 푸티뿌르家庭夫人일지。淫賣婦일지 意識者는아지못하겟다。그의 戀愛觀의意識이 야릇으로서 이詩에서 謳歌하는『사랑』端的으로서 말하면 淫賣婦의그것이라도 全然無關한『女子의사랑』이다。이곳에 이詩의 無政府主義的 虛無와 데카탄스의偏向을 指摘치안흘수업는것이다。

『업는 政治가업서도
서글프여이지안는 文學의 아들이 되면은조타』

◇…**腐** 敗한『女子의사랑을求하야가는』무리가 엇지하야서 誠實한 우리文學의 조흔아들이 될수가잇슬가『사랑은 도한새로운 廢頹狀態를 주기始作한다』이와가튼 非健康한 모랄(道德)업는 사랑이면은 淫賣婦와가튼 廢頹 倦怠 하품 破滅을 齎來함이 必然의結果다。

『政治의사랑의毒보다도 女子의사랑은 [redacted]』

이것은 政治에對[redacted] 反撥的毒舌이 아닐가。

『政治의毒』과『女子의鬪』을無批判的으로 或은意識的으로 對比시김은 삼가야할點이안일가。

『그러나이곳에도 또한무서운 갈파질팡이잇다』

그야必然的으로 그와가튼沒落의 末路일것이다。『무서운 顫慄的 性愛의毒이여!』이다。

一漢詩一
『薔薇』二 押香 桐岡考選
佳作之四之六 新義州 高秉哲

綠刺黃鬚絶艶粧
連春接夏擅風光
身如藤蔓登高架
骨換桃花壓衆芳
錦帶盤明豐玉露
水晶簾動挹天香
西方國色令來見
可與牧丹爭謂王

銷夏漫筆 淡水室의小話 (十二)
湖岩

金剛山을 읊은古今의 漢詩가 汗牛充棟이다。그러나 너무나 엄청난大自然의眞正美이므로 그것을如實히 그린것이 업다 或은五代李山林楨寒의 金剛詩에

掃盡洪地爭相脫。石怒難容叢欲飛。

이것을 第一名句로 推奉하는 이도 잇다。自來五絶로는 無名氏의作인

雲與山俱白。雲山不辨容。雲歸山獨立。一萬二千峰。

이것을 代表的으로 傳誦하다

淸州燕에 關한五言詩로는 自日高堂靜。丹心夢夢周。千年橋下水。不入漢江流。이것이 흔히 愛吟되는바 다만 作者氏名을 알수업는것이 遺憾이다。그리고 淸月臺에關한 五言詩로는 山雲李先輔의 燕麥滿家田。田中古塔古石。蝶子歌舞地。明月如今夕 이것이 아주 人口에膾炙되다 그러나 懷古詩에 잇서서는 李亮淵보담 正祖때 四家一人인 柳惠風得恭의 二十一都懷古詩가 가장有名하다。그중松都詩의 一句 二十八王陵。萬雨年年暗。滿月山中紅躑躅。春來猶自發庭層。

이들의詩句는 그當時淸朝詩人사이에 크게歡迎을 바더 柳惠風과 朴楚亭 그詩友三人의 서로 唱和한四家詩集이 乾隆文壇의 評判가 되엇다 이四家는 朝鮮漢詩에依하야 그때淸國文壇과 聯絡시켯다。이보다 직이 뒤저 純祖때 金秋史(正喜)가튼 書道金石의 大家가 나서 嘉道年間의 淸朝學人들과 자못交涉이 기펏섯지만 이秋史도 그實은 上述한四家中의 一人인 朴楚亭(齊家)에게從遊하엿섯다。楚亭은 大文豪朴燕岩(趾源)의 高弟로 일즉부터 經世에 뜻을 두어 北學의唱을 主倡하든이다。

이때 朴燕岩을 비롯하야 이楚亭가튼이는 모다實事求是하는 經世學派로 百孔千瘡의 朝鮮을 政治로써 하는이외에 다른道理가 업슴을 깨닷고 먼저 淸國을 배우자고한것이 곳 이北學의唱이라는 것이다。그러나 程朱道統의 學者로 自居하야 禮義文物의淸國을 오랑캐라고 排斥하는판에 北學의唱을 하라는것이 그네들의귀에 드려갈리가 萬無하므로 燕岩과 楚亭이 一生을 不遇에 마치고 말은것도 어찌할수업는일이다。

燕岩楚亭을 中心으로한 北學派는 李朝五百年間에 잇서서 저 世宗때 日本의 施設을 採用하자고 主張하든 朴瑞生等의 南學派와 서로對照하야 볼때 일층더 興味를 느끼게된다。

朴瑞生은 通信使로 日本에 가서 一年以上을滯留하면서 그 當時日本의 生活情態를 자세이 調査하야 가지고 朝鮮에 도라와 그것을 報告하는同時에 日本의水車、商店 그他諸事가 朝鮮에 實施되어야 하겟다고 朝廷에 建白하엿든 것인데 그것이 마침내 實現되지 못하고 말엇다。이朴瑞生의後 壬辰亂때 柳西厓(成龍)之는 朝廷에 上疏하되 朝鮮人은 文弱하니 마땅히 鳥銃製法을 操作시킬 必要가 잇는바 옛날遼金의遺俗을 배우자고 力說하엿다。

上下가 온통 明國의文化에 心附하야 崇拜如師하는 時代에 遼金가튼 옛날胡虜의 遺俗을 배우자는것은 실로 靑天의霹靂이다。그러나 梁誠之는 經世家로 學者가 漢文化에 心醉되엇슬때 오히려 公平한觀察을 하엿스며 그는 이런主見을 어데까지 實現하려고 애를 썻는데 우리는 이것을 역시 北學派로 보고시푸다。만일그러타면 梁誠之는 燕岩楚亭의 先驅를 지엿다고 하겟다。

[illegible]學生通信
歸鄕短信 (二)
延專商科 李大均

M兄! 나는 平壤에서 여러가지現實的 體驗을하고 十三日午前十時車로 宣川을向하야 떠낫나이다。汽車가 北으로 進行함에딸아 平野의 水稻가 左右에 展開되고 鐵道沿邊에 한두間씩 點在한『오막사리』들속에서는 아치연기가 나고잇습니다。이오막사리가 보기에 더럽다하야 朝鮮을旅行하는 外國人에게 羞恥꺼리가되는 하나 朝鮮人인 나로서는 決코 그러케는 생각되지안습니다。

M兄! 나는 午後十一時半에 겨우 故土를 밟엇나이다。이제부터 農村의 風景을 報告하려합니다。무엇보다도 내가 林兄을 찻기는 滿一年만인데 그동안人事의 變遷이 無常한것이올시다。뒤처에 살고 또한 나의 同窓的친구인 文秀君이 突然한 病魔의 犧牲으로 永永 세상을버리고 또 시골 中堅靑年으로 指導的人物인 興秀君 亦是今春에 永眠하엿답니다。

이들의 죽엄은 一年後에 찻는 나에게 마음이 비은듯한感을주고 도主人을 일흔城리와가튼 말할수업는 哀愁를자아내게 하더이다 그나그뿐인가요 이마을에서 相當한 地盤을닥고代代孫孫으로 地主에 매달려 小作으로 生計를 세워가든 마을의典型的 小作人 金書房이農繁期에 그의 生活基本인 農莊을일고『서간도』로 살길을 차저떠나가고…… 宋書房의안해는 어린子女를 데여살리려고 國境의 都市新義州에가서 胡酒店을 하다가 法網에걸려 刑務所로 간身勢가되고ー그러하야 이곳저곳에는 昨年에업든 빈집이생겨서쓸쓸한 집웅에 雜草만 더욱茂盛하게푸르러 떠나간 녯主人을 찻는듯하외다。

M兄! 이런 農村悲劇 人情悲劇이야말로 不過數年의 일이외다。村人口에는 昨年에업든 精米所가 생겨서 아침 저녁으로『모ー타』소리가 들려오고 自動車바람에行人이 길찻기가 힘든다합니다。江건너마을 夜學校는 廢止를當하야 多數의 兒童들은 배움의 길을 일허버리게 되엿답니다。그러면 이兒童들은 인제는그나마 배움길이 업서젓답니다。

M兄! 朝鮮農村은 그生産樣式과 그分配方式에 依하야 兩型의 特殊性이 並行하는것입니다。外面上으로는 封建的色彩가 흘르지만 內面으로는 資本主義化하야가는것입니다。卽 資本社會의 胎內에 封建社會殘骸가 潛在하얏다는것이외다。이것을 農業의 二重性이라고나할가요。이二重性은 一定한 歷史的發展段階로부터 다른段階로 變遷되는 轉化期의歷史的發展法則이겟지요。

이地方의 農業과 農業生活에 잇서는 自然經濟와 商品經濟의 矛盾이 가장 顯著히 나타나잇습니다。朝鮮農村의 農業에는 一般으로 自然經濟의 뿌리가 기피남어잇다는것은 누구나 잘아는事實이아닙니까。(一例를들면고무신代身에 짚신을 삿는 自給自足의 時代가 잇지요。그러나 다른다편 零細農業及 農民의生活을한면 뿌리기피 殘存하야잇는 自然經濟속에 가장 尖端的인 商品經濟가 突然農民生活에 侵入하얏는것입니다。이두經濟形態의 激烈한 衝突과 이로부터 생기는 農民의 辛苦는 農村을 特殊化식히는 最大의 原因이라고 생각됩니다。農民의 特殊한 負債도 이와가튼 矛盾의 한表現이라고 볼수잇습니다。이 部落의 六七割은 貧農인데 播種時까지 먹을쌀을가지고잇는이는 富裕한편이고 部落全體의 七割은 播種前에 먹을쌀이 떨어진다합니다。

마을의 農民들은 다巨額의 負債를 가지고잇습니다。이러한狀態에 對해서 마을의貧農들이 말하야주는것은 나에게對하야 啓蒙的이엇습니다。그것을 나의말에 곳처서말하면 그들은 經濟的으로나 이데오로기ー的으로나 商品經濟=資本主義經濟에 對하야 何等의準備도업시 그渦中에 빠져들어갓다고……이러한말을하야주는 貧農의한사람은 그의父親으로부터 土地를相續하야 自作農으로서 처음出發하얏스나 그것이 今日에는 그자최도 차즐수업는 小作人으로 떨어지고 八百圓以上의 負債까지 지게되엿답니다。自作과 自作兼小作으로 土地를 일허버리는 農民이 每年 四五人은잇다고합니다。農村ーー이것은 現下모든 識者들의 그보다도더 모든農民의 最大의 關心事이요 또 最大의 問題꺼리입니다。

一隨想一
鶺鴒哀語 ④
馬昇圭

亡妹야! 어머님께서는 네가 痛聲을 내일때마다 그乳腫을 물태워 가려마서도 사랑하는 따님인 네怨讎를 다 못갑겟다고까지 하섯다。얼마나 哀絕의絕頂에 올릇 어버이의 歎聲이냐! 너는 病苦와鬱火에 부다끼다 못해서 이따금 짜증을 내엿다。그처럼 알들하게 看護해주시는 어머님께 말끗마다 퐁퐁쏘아대엿다。나중에는 네게 唯一한血屬인 延淑이 딸년까지보기실타고 네 아페 얼씬 못하게햇다 흉흉! 느껴가면서。너는 그때부터 確實히 換腸이되엿다。이세상사람이 아니엿든것이다。나는 네가 그러는것을 볼때마다 하도안타까운끄레 卒倒되려는 내精神、허무러지려는 내마음을 붓잡어 鎭座시키에 애썻다。그리고 내自身을 꾸짓기에 바쁘든것이다。너를 出嫁시킬때 亡妹夫의揀選을하기도 나。어머님은 新郞爲人의 氣質이 懦弱해서 壽命이 짧겟다고 躊躇하시는것을固執세운것도 나。단지 양전第一主義에만 홀려서 집안어른들의反對를 물리치고 期於히 成婚시킨것도 이오라비가 아니냐! 그러듯 어두운 내눈、어리석은 내知感力이 너로하여금 오늘에와서『故人』의 稱號를 바치게햇스니 내무엇으로 贖罪를 해야 올흘것이냐! 나는 이것이 아프다。나의 近視眼的 職務를 네가 흘려노코간 怨恨의 피로 호려바리고 십다。

네가 亡妹夫의 三週를 치르고난뒤 하도 寡居의憂鬱에 쌔혀잇든것을 보다못해서 ××하라고 勸하지 안헛느냐。네가슴에 一生怨恨의 못을 박어준 이오라비가 무슨 廉恥로 敢히 그런 唐突한 소리를 입밧게 냇드냐。내가 그런말을 할적마다 너는 別態怪스러운 말을 말라햇다。그것은 節婦를 侮辱하는 소리라고 하도여러번 勸하니까 나종에는 울기까지햇다。그리고 自殺로써 나를 이기려고까지 안헛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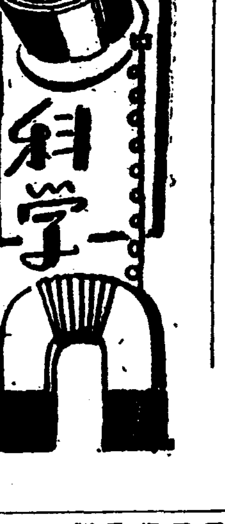
亡妹야!『貞烈』이란 썩어빠진 녯말일다。이 허울조흔 탈을 뒤집어쓴놈이 이따에 차저드러온지 몃千年동안에 婦女子들의 마음을 구석구석 사로잡어가지고 그들의 아까운 목숨을 얼마나 빼아서갓느냐? 너도 이 不滅의怪物에게 捕虜가되여간것이다는 잘안다。그리고 아프로는우리집안에 이것을 前鑑삼어 擊戒하려한다。이따에서 이惡魔를 退治하기에 힘쓰겟다。그리하여 네게對한 報復삼는 同時에 許多한 이따의 누이들의 寃魂을 慰勞할것을 네게 盟誓해둔다。

人民의藝術家
『베드누이』榮譽

『聖基督傳』의 作者로서『쏘베ー트』聯邦이 世界에 자랑하는『데미양·베드누이』의 文壇生活 二十五年祭는 最近모스크바에서 盛大하게 擧行되여 人民의藝術家로서 最大의 榮譽를 獲得하엿다。

(寫眞은 그의 ……… 빗나는 ……… 右가 赤旗章)

科學의「?」
無電의異變인『데린자ー』現象 (二)
東京 金一鎭



『太陽面上의特殊爆發』

이에問題는 이無電障害가잇슬時 果然太陽黑點上에 何等變化가잇느냐 업느냐에 歸着되겟스나 데린자ー博士는 이것을 確定하기 爲하야 먼저太陽面의 觀測을『윌손』天文台 台長『헤ー르』博士에게 付託하엿다。이에 同天文台에서는『리차ー드손』氏의 손으로觀測을行한結果 二十四日에는 數分間에 亘하야 水素紬羊斑의 形態와 强力의 度가 急激히 變化된것을 發見하엿다。水素紬羊斑이라함은 水素를 發하는H。라 稱하는 輝線에 相當한 單光으로 太陽을보든가 또는 寫眞에 撮影하면 羊毛의 形態에 恰以한 주름이 타남을 말함이니 黑點附近에서는 螺旋狀을 보이고잇스며 水素瓦斯의 渦動이잇슴을 볼수가잇다。

그리고 이細羊斑의 形態急激히 變化함은 여기에 어떠한 爆發이 잇슴을 推測하게한다『윌손天文台』에서는 그前 無電障害가잇섯다는 七月六日 八月卅日의 觀測을 調査하야보는結果 果然 同一한 事實이잇섯슴을 알게되엿다。이에 이것은 어떠한 特殊爆發이며 이것이 無電通信에 影響을 밋치게한다는 假定을 내리게되엿다。이가튼 大陽面爆發觀測은 그後 本年에들어 二月에 英國『그린위치』天文臺에서도 施行되엿다。이 觀測에는 七月頃부터 特殊한 活動을 보이는 黑點이 나타낫슴으로 太陽分光器로 觀測한結果 水素線에 對하야 異常이잇슴을 發見하엿다 이黑點은 二月十四日에 大陽面의 中央을 通過하엿는데 그때까지 約八日에 亘하야 爆發이 觀測되엿스며 特히 十四日 中央子午線通過後 十二時間만에 나타난 爆發은 더욱 顯著하엿다。그때에는 水素의 析…이 最大速度 二百十粁餘砂라는 大한 速度로 外方에 噴出하얏다가 約十分後에 다시 太陽面으로 消退하엿슴을 觀測하엿다 이『그린위치天文臺』의 觀測에 對하야 他方 十四日의 太陽面 爆發後 二時間만에 短波無電障害가 잇섯다는 報告가『나쇼날·피지칼 레이보라토리』에잇섯스며 障害時間은 約二十分間이엿다한다。

爆發과荷電粒子

太陽面上 黑點內라하야도 宏大한 高溫度이라함은 上述한바와갓거니와 이러한 高溫中에서 爆發이 이러나면 原子가 破壞되여 荷電粒子가 非常한 速度로 射出되리라 推測함은 容易한일이다 이러한 爆發은 英國의『미른博士』가 一九二六年에 大陽彩層ー(大陽光球를 덥고잇는 氣體層을 말함이니 뒤에 大陽自體에 關하야 簡單히 說明하고저 한다)ー의 理論을 提出할時에도 벌서 假定한것으로 이것이 無電障害의 原因이된은 以上의諸事實로 疑問의餘地가업다。이에 太陽自體를 簡單히 說明하면 普通大陽은 그强力한불덩어리로만 생각되나 그實은地球가 두터운 大氣層으로 덥혀잇는것과가티 大陽도 두터운瓦斯層으로 덥혀잇다ー니보다도 大陽의 形態는 鷄卵과恰似하며 鷄卵의 흰자위에 相當한 큰瓦斯의 몽치가운대에 그빗나는 光球가 잇는것으로 天文學者는이를 光球라稱한다。(寫眞은黑點을 撮影한것이니 羊毛와가튼 구름을보라)

漢詩募集
題……蓮
押……心
限八月二十五日
(薄謝進呈)

新刊紹介

▲基督敎報 第六十八號(週刊)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一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福音과宗敎敎育 八月號 發行所 馬山府上南洞七四 慶南老會宗敎敎育協會 振替釜山五五三九番 定價一年 二十錢

▲女性展望 八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麴町二ノ三ノ三婦選獲得同盟 振替東京七〇二二八三番 定價十錢送料五厘

▲京城府立圖書館報 第四號(月刊)發行所 京城府立圖書館 京城府長谷川町一一五 定價一部二錢

▲農軍 第四號 發行所 平北宣川郡宣川邑川北洞七一 農軍社 定價一部二錢

讀者社交室

▲本人의友人으로서女高出身인 大或私立學校女敎員으로 採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答은本欄으로通知해주시요 全北 要求者

▲慶南金海李生에게答함 本報六月四日附로 貴下의普通文官講義錄을 廉價로讓渡하신다하얏기 本人이 買入코저하오니 講義錄은 全部有無와 代價의如何와代金의 支拂方法等을 詳細히左記住所로 直接通知하여주시요 慶北義城郡安溪市 金文洙

▲여러先生님께뭇습니다 明治四十五年五月二十二日(陰曆)이陽曆으로 何月何日인을 本欄으로通하야알려주시면 大端히感謝하겟슴니다 黑綿

▲愛讀者諸賢에뭇습니다 明治四十四年陰曆六月二十日을陽曆으로換算하여주십시요 微意나마薄謝하겟습니다 興南工場 淵哲

▲生은延禧專門學校 商科生이온대 學費籌出하야주실宅으로 家庭敎師로 가잇고저하옵는데 普校五、六學年 程度로부터 中等學校 三學年生까지의 生徒를 希望하오며 特히 男女를 勿論하고 商業學校生이면 彼此便利하겟사오며 生은 敎師經驗도잇사오니 願하시는 분은 通知하야주시면 가뵈옵겟습니다 橫南町六一 張鼎鎭

▲五圓紙幣半分을가지신분에答 五月十三日 讀者社交室을通하시와무르신 日本銀行券五圓紙幣는 株部容積이分明하시다면 朝鮮內朝鮮銀行各本支店에서 一圓五十錢에밧귀드립니다 따라서參考될 줄이오나 朝鮮銀行券도 同一이오며 損傷券引換標準에關하야는 大藏省令第三十號第三條의 明案이朝鮮各銀行、金融組合에잇사오니 最寄銀行이나 金融組合에 가서서 閱覽하시여보시요 湖南線三郷驛前 黃相基

▲四五年前에 情誼한 姜秉秀君(舊名與秀)在鄕이거든 流浪이거든 一旬傳答하야주게 山淸郡 諸氏께 도告합니다 新安面耳里右氏의 消息을通하야주시면 感謝不忘이겟나이다 一

▲(…川郡…李鍾弘) 二 十一年六月四日開催한 實業練習所에서 九州福岡市中島町十番 大日本家庭…會發行 各科講義錄이잇소、某… 成功하소서 (慶南…川 李鍾弘)

▲…에게 …께問합니다 …町一四五 朴貞玉이 지금은 무슨營業을하는사람인지요 此社交室을通하여下敎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ー愚生ー

▲…여! 昨年四月에 …衣…를 告한다는君의書信이 最後로只今까지이렇다는 …을알수업서 나의마음…시슴니다 速히社交室을通하야 住所를알녀다고ー或 東京上野…校…科에 籍을두엇든 全南順天生의 郭昌準君의住所를 아시는분이 게시면 社交室을通하야 알려주시오면 感謝하겟나이다 於大邱 黑海

▲慶北醴泉…公普校에 敎員이엿든 金龍述兄님아 君이그리워서住所를알라고하여도 도모지 알수업다다옵住所로알수업슬가 京都市下京區烏丸六條ビル 三和商事證券部內로 南寅

▲本人에子息이 普通學校를卒業한者이온대 平素에所願이海員生活을조와하든中 제동모에게海員養成所에가서 海員이되겟다는 말을 秘密이傳하고 四五日前에 집을나간後終無消息이오니 甚히 未安하오나 海員養成所는何處에 在하오며 試驗合格後는 如何한 處理를하는지요 海員에對한諸般 規定을答알녀주심을 仰望하옵나이다 京城峴底町四五의二〇 全永寬

▲寫眞始作하려는분의게 左記의 寫眞機를讓渡코저하오며 買受하신분에게는該機를利用하야 引伸擴大한寫眞과 簡易하고 其秘訣?을 敎示하여드리겟습니다 (甲)아ー스트만 藥書型乾板用F、8아나스틱그맛鏡玉、取枠三枚、三脚、카방附三十圓 (乙)뻬ー뻬ー빨ー(뷔스트ー•2型F•4•速寫케ー스附二十八圓 (咸興黃金町一ノ一一七金春胡)

▲朝鮮日報讀者께仰問하나이다 皮膚科專門 淸華藥公司 金殷善氏 病院住所를아시는분이게시면 紙上을通하여 알려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一讀者)

▲小生은 今春日本齒文大學에서出版하는 判任文官講義錄을 全期分買入하엿든바 事情에依하야 읽지못하고 廉價로 讓渡코저하오니 希望하시는분이 잇스면 左記住所로 申請하십시요 咸鏡南道永興邑南山里 金聖淳

▲大正三年冊曆을 所持하신분에게 左記한바를 仰問하오니 此社交室을 通하야 알려주시기를 바라나이다 一、大正三年陰五月二十四日은 陽何月何日 二、大正三年陰閏五月二十二日은 陽何月何日 金字星

▲예전 冊曆을保存하고게시는先生님諸氏에뭇습니다 大正元年陰十二月二十五日은陽曆으로 어느날에該當합니까

一、漢藥學을研究하시는李乙浩先生과 趙憲泳先生님의 住所를아시는분은 社交室을通하야 發表해주십시요

一、漢藥業에도多少經驗이有하오며 製藥에는十餘年經驗이有하온데 서울漢藥大家에게就職하여 研究할수잇슬가요 海西 研藥徒

▲求婚 一、健康 二、容貌 中 三、學力은中等程度 四、身長中 五、年齡은 二十歲前可量 以上條件에 該當한 女性을求합니다 本人의本籍은 平北이고當年二十二歲의 長男이고 市內某專門學校에在學中 市內紅把町二五 金求婚生

▲文學을愛好하시는여러분께 小生에게 世界名作小說家들의書籍이有하겟습니다 希望하시는분께 讓渡하겟사오니 或은朝鮮小說과도 交換하겟사오니 希望하시는분은 左記住所로 大阪市浪速區西神田町八八三 山川方 宋基哲

淋疾藥 (림질약)
淋疾患者에 어더한藥이 第一조흔가?

이것은內務省大臣을會長으로하고 醫藥學界의最高權威者十六名을委員으로하야 嚴重審議를한後그品位를 指定하야、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또內務省衛生試驗所에서檢査封緘한 藥劑가我國醫學界의指針이되야잇슴으로 本社의淋疾藥은、政府指定醫藥學界의最高權威者가選定한日本藥局方收載 그리고 內務省衛生試驗所封緘의 治淋劑六劑를主藥으로하고 何等副作用이업도록配劑한公認治淋劑이다 淋疾患者는專賣所에여러가지의廣告에迷惑치말고 곳有田도락구로申込하라

淋藥 價 特製(八日分)四 / 別製(八日分)八 / 德用(十六日分)十五

梅毒

本社創劑의 梅毒藥은 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種과 皇漢藥數種을主藥으로하야 副作用이絶對업는 出願許可済公認梅劑로서 귀초의감창、가래톳의 치료는물론、제이긔전신매독、잠복매독、유전매독、매독성른마지스등도 본제의내복으로 곳 배독작용(排毒作用)을하며 매독으로 일어나는 불쾌증과 국부와 전신증이 점점회복하여저서 치병의목적을달할수잇다。무서운 매독을 손에게 유전치안도록 하로라도 빨리본사의 구매제(驅梅劑)자용하야 고치시라

藥價 特製(十七日分)六 / 別製(十七日分)八 / 德用(三十日分)十四

有田ドラッグ
有田ドラッグ專賣所々在地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龍山練兵場 有田도락구
平壤本局前 有田도락구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京町 有田도락구
馬山京町二 有田도락구
麗水港 有田도락구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兼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漢里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櫻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二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高價藥配劑公開

肺病 肋膜炎 肺炎가다루 藥

本社에서 發表한肺病肋膜炎의全快者는어느거나左記에公開한 高價藥配劑의別製治肺劑와有田血液藥을服用하면서一方으로 올바른療養으로實際에全快되도록하는것으로서住所氏名을明記하고全快後健康體가되든寫眞까지 公表한것으로서正確하고도信用할수잇다。有田別製治肺劑는歐米는勿論、我國醫藥界의最高權威者들에게서選定된日本藥局方治肺劑와多數高價藥等二十三種의配合에依하야 綜合的醫治効能을 表顯할여러가지 症狀을輕快케하는公認治肺劑이다 現今의當局의取締가甚히嚴重함으로虛僞又는誇大廣告는絶對的으로不許하니左記의高價藥配劑公開가든것은秋毫도虛僞는안이다

結核治療劑 (時價一키로瓦의單價)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鎭咳祛痰劑 五種藥綜合配劑
結核解熱劑 一種 七百四十圓 外一種藥配合
二種 二百三十圓 / 一種 三十一圓
强胃强腸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四種藥綜合配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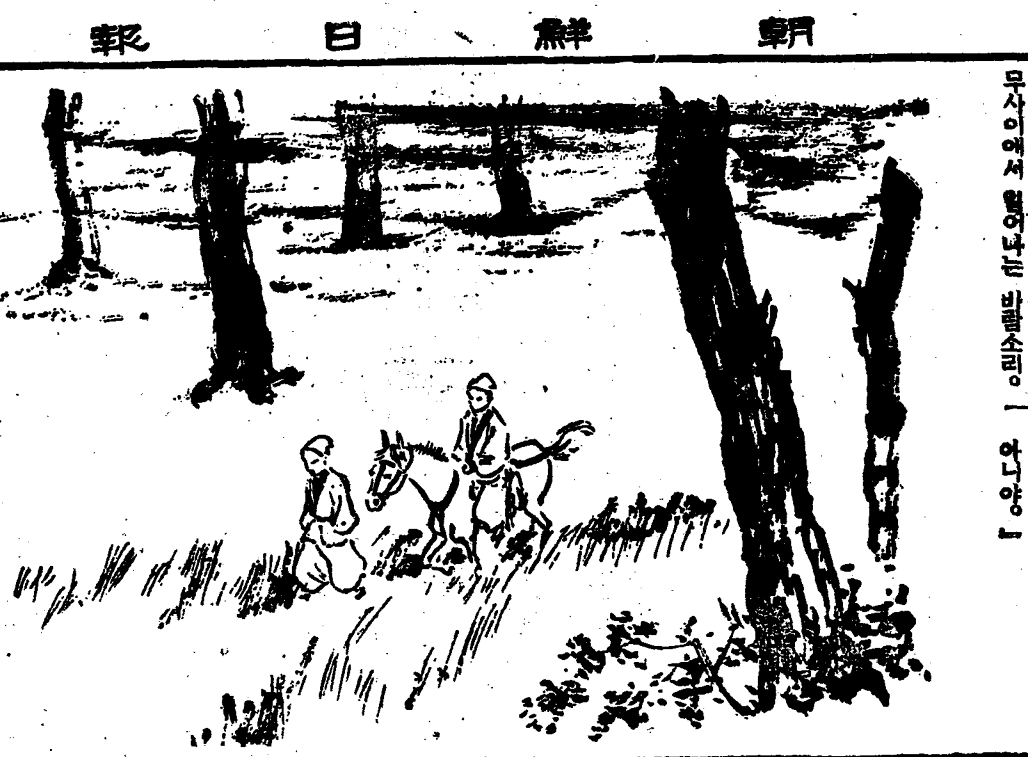
食慾促進劑 一種 二百六十圓 外一種藥配合
鎭靜劑 一種 五十二圓
消化劑 一種 四十七圓 外一種藥配合
酵母劑 一種 五圓五十錢
滋養强化劑 一種 五十二圓
호르몬劑 一種 千六百圓 / 二種 千二百圓

本社의藥劑가肺病과 肋膜炎에如何한有効한가를노구라도곳알게되는것은食慾이增進되고排便의調整體重의增加結核熱의解熱기침의緩和痰의減退等으로이것을무엇보다도回復期에드럿다는證據임으로放心말고養生하지안호면안되다 連服하야藥效가나타나기始作하면 體重이날마다增加됨으로 놀날어보시라。

特製治肺劑(八日分)十九 / 別製治肺劑(八日分)十五 / 德用(十八日分)二十八
有田血液藥 四圓

連載野談 布衆記 (九二)

申鼎言 作 / 金龍超 畵



선의잇는권에 (十)

백운국선이 그자리에서 말쯤비를 저거하고 가는것이 마련섭옷지고 물을 향하야 가는것도 갓고 호랑이나 독사를 떨어가는것도 갓엇다。

큰길을 버리고 기름길로 드려서자 마루、마루、골작이、골작이가 울퉁、집퉁、지극히 험하야、거름을 것기가 매우 어려울뿐만 아니라 빽빽히 들어선 수목의 가지와 가지가 서로 뒤덥히여 그러케 밝은 달빗도 비최지못하니 이 험한산길에는 일점도 무광한듯하엿다。

그리하야 갈수록 길은 어두어지고 다만 이골작、저골작이에서 흐르는 물소리、나무와나무사이에서 일어나는 바람소리。

때도 밝은 낮에나 자지케。제후소저가 아모리 조용한곳을 택하야 나를 만나고저할지라도 이밤중、이험한 길을 지나 금송정까지 어찌 갓슬고。내가 소저를 길우워하듯이 소저도 나를 길우워할것은 사실。그러나 제후소저는 그어버이의 교훈도 교훈이려니와 스스로 행금을 꾸짓는것이 엄하야 과연 그 규중범절이장하거놓。아마도 이상한일。

하며 백운국선은 마음속에 한의심의 싹이 터젓다。

그러나 백운국선은 잠간 그의심하든 생각을 다시 후회하는 마음으로서

「아니야。사람의 말을 의심하는것은 군자(君子)의 도리가 어니야。」

또참이질이 저근 숲속에서 호르는 벌거지소리。그모두가 부지런서 처량히들리고 부지중에 선경이 날카로워진다。

대체 백운국선이 차저가는이 금송정(琴松亭)은 신라서울 남쪽 금오산(金鰲山)이란 산마루에잇는 정자이니 일즉 악사(樂師)우륵(于勒)이 가야금(伽倻琴)을 익히려 지극히 한적하고 경치가 그윽한곳을 찾다가 필경 이곳에 일으러 가야금을 힌통할새 그소리가 매우 신긔하야 현학(玄鶴)이 날러와 춤을 추엇다。가야금 일홈을 현금(玄琴)이라 짓게되고그자리를 긔렴하야 정자를 지어 금송정(琴松亭)이라 일홋케된것이다。

그럼으로 그정자자리의 래력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시인묵객(詩人墨客)과그밧게 풍엇는선배。그중에도 특히 산수의 풍경을 딸어 노니는 국선으로서는 한번 차질직한 곳이엿다。

그러나 산길이 너머 험하야 아무리 달이 밝다할지라도 밤에는 들어서기가 어려운 길이엿다。

백운국선이 한모롱이 두모롱이 적어 들어갈수록 그 험한품이 더욱 심함으로

「아아。매우 험한 산길。한번 차질직한 길은 길이나 찾는」

하고 그대로 숲속을 헤치고들어 갈새 밤바람과 찬이실이몸에 부듸치고 또는 이생각、저생각으로 취햇든 술과운이 살어지매 정신이 다시금 새로워젓다。

얼마동안을 줄곳 산길을 타고 올라 가다가

『이것봐!』

하고 백운국선은 고 자객을불럿다。

『예!』

하고 그자객은 놀난 음성으로 대답하얏다。

이때 그 자객이 백운국선을 죽이려고 그길로 산속으로들어서 오기는하나 한편으로는장차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도한편으로는 수목이 울창한 밤길이 처음이니만큼무서운 생각。그뿐아니라 백운국선의 뒤에비수를 어떠케 대여야 할는지 그틈을 찾기가 어려워 엉엉하든 생각으로 역시 거러가기만하는중 자긔를 부르는 백운국선의엄망한 목소리가 고요한 금오산을 울리면서 돌리매 그자객은 과연 도적놈 제발저리다는 말대로 크게 놀내게되엿든것이다。

이에백운국선이 산을 울리는듯한 기침을 한번한뒤에

『산길이 되여서 그런가 매우 험하군。』

『그럿습니다。』

『자!。소저께서 어떠한 길을 어떠케 가섯슬가?。』

『아가는 달비치 잘비처 그럿듯지 어머지는 험하지 안켓삽는데。』

『밤중에 안온나도 둘이 끈하거든 어둡며 것은 사람이야 다리가 좀 압흐리。자!。내가 잠간 거물려이니 이말을 매신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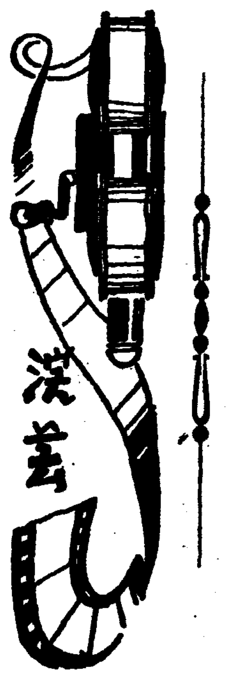
『아니올시다。황송하압신 처분옵。』

『그래 왜 목소리가 떨리는냐?。무서운생각이 나 목소리가 무둔지아니하니 쌍섬이 호랑이도 겁날것이 업거늘。』

하며 백운국선은 지극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객에게 말을 타기를 권하얏다。

【世界映畵新傾向】(一) 音樂의革新 ①

金管



純粹音樂이 귀(聽覺)의 藝術이라고하는 定義는 적어도 昨日까지의音樂의 모랄로그것은美音的이라는道德을키-노-트로 한것이다 그러므로 若干의 例外를 除하고는 어떤 形象的인 프로그람性이나 或은 繪畵性을 音樂가운데서 차즐수는업섯다。다만 로맨티시즘과 센티멘탈리즘이 第一義的으로 생각할수잇는 音樂의 선물이엿다 最初로(大戰前) 새로운 形態와 樣式을들고 짜즈音樂이 네오·로맨티시즘의 旗幟를들고나타난것으로 말하면 過去의 美音的모랄을否定할려든것으로 重要한일이다 純粹音樂의 樂音의 構成을 破壞하고새로운 樂器編成과 音響으로서새代의 力學性을 獲得하얏고또는 抽象性美音의 圈域을 解脫이야 하나의『現實的音』을 發見한것은 確實히 完成된것은아니나만 音樂上의 一大革新에틀림업는것이다。

짜스의 出現으로 音樂界의動搖는 말할것도업고 토-키-漫畵에잇서서도 示唆를바들만한새音樂의 創始를 짜스와의 連關가운데서 가질녀하고 잇다。極히常識的인 그리고 皮相的인見解로볼지면 토-키-漫畵는 音樂的要素가 視覺的要素(畵面)보다 優越한 地位에서게되는대서 音樂의自由性을 發揮할수는잇다고하겟지만 그보다 기피 토-키-漫畵가운대서 우리가찻는 日常生活과 密接한關係를 가지고 使用되는『現實音』——레알리즘——에 더한層 重要性을 두게되다 다시말하면 토-키-漫畵에서비로소 音樂은 形象的인프로그람性을갓게되것을 指摘할수잇다。

우리가 音樂을鑑賞하고 또는正當이理解하기爲하야 어떤程度의 音樂的修練을 要하는것은 두말할必要도업다 다시말하면 樂音을構成하는法則과 形式과 하-모니를 알어야한다。그것을모르고 씸포-니를 쏘나타를 理解할수는絶對로업는것이다。우리는 音樂藝術의그러한技術的難澁과 抽象的形態인點을常識으로 알어왓다。이常識은 音樂이 形而上學的인『품』을 가지고 民衆의머리우에서 쏘다지는 神秘의美音으로서 民衆의生活을 抽象化하고잇섯다 그러한 音樂의 槪念을버서나서 데모크라시-의 要求를漫畵토-키-가가지게된것은 音樂이形而下學的으로된것이고 따라 民衆의生活과 融通할려는氣運을 包含한것이라고볼수잇다

짜스音樂이 토-키-漫畵와結合한데서 普通音樂의槪念은깨뜨이揚棄된것이나同一하다 十分間인映畵가운대서 새로운音樂의레알리즘의길을 指示하는音樂의繪畵性、戲曲性、프로그람性等이集約된것을看取할수잇기때문이다

×

우에말한 若干의例外가운데서 베-토벤의音樂이 한개의『革新的』이라고 불리우는 理由로말하면 그가爲先 樂聖을無視한데 잇다 베-토벤以前으로말하면 宗敎音樂(敎會音樂)에잇서서 가장最高의位置를 占有하고잇든 聲樂을 베-토벤은 批判하얏고 그것을 인스트루멘트와 同系列에 노혀버린것이기때문이다。또 그當時 베-토벤의 音樂(旋律)이『非美音的』이라고 생각할수잇는것은 第六씸포-니와가튼 畵的한形象的인 그리고 繪畵性을가진 作品에서보듯이 레알리스틱한 構成과 自然主義的인 音響을 사랑하고잇기때문이다

＝헐리우드의 模範的賢母＝

헐리우드의 어진 어머니 세부—左로부터 카렌·모레이아린·잣지、사리·아이라스가다각각 귀여운 애기를 무릅우에 노코 이야기하는中

映畵界消息

파社新社長에는 바라반氏新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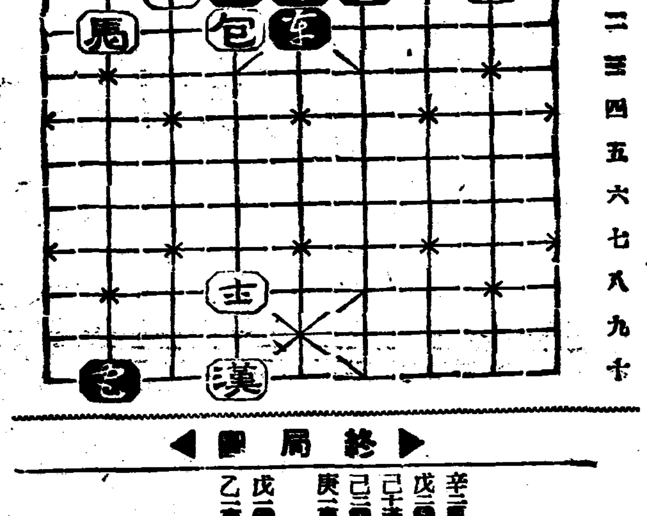
社長改選의파라마운트 重役會議는稀有의曲折을 거듭하고잇는中 요전에社長으로 올려안친죤셉·케네디-는 社長新任을受諾치안코 現重役會長아돌프·스-카의 社長再任說도사라지고 요지음 B'·바라반氏는 치카고를中心한映畵劇場체인의主人으로서 最近파社의重役으로新任된사람이다 바氏의任期는五個年間이라고한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四)

手先 漢一兵 李在鳳 對 李英鎬

◀ 百三十手 ▶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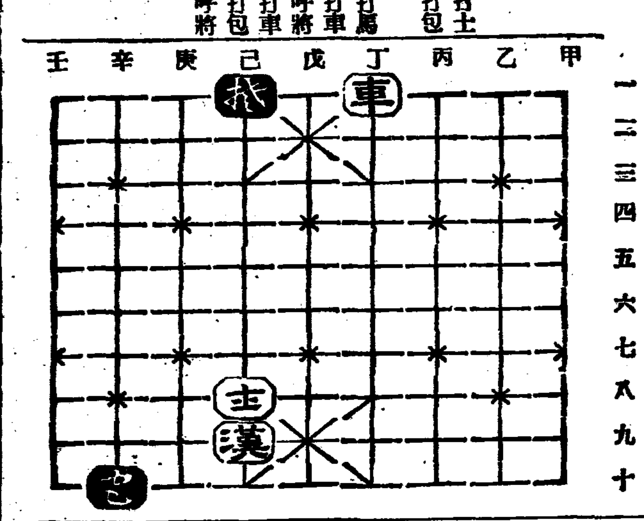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 終局譜 ▶

辛三馬—己三打士
戊二包—己三打包
己二漢—己一兒
己三包—己二打馬
庚一車—己一打車 呼將
戊一包—己二打車
乙一車—丁一打包 呼將
(當)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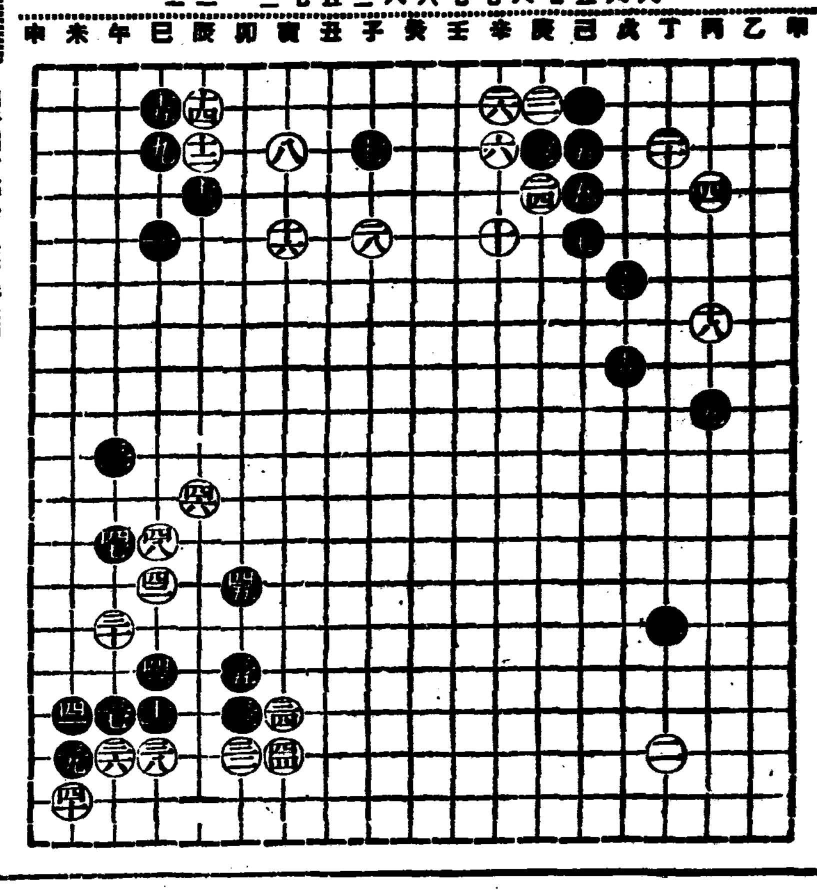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三—

白 李稷文
先 丁壹春

● 卯의十八
○ 寅의十六
● 卯의十五
○ 午의十七
● 午의十六
○ 巳의十七
● 未의十七
○ 未의十八
● 未의十六
○ 巳의十三
● 巳의十五
○ 寅의十七
● 卯의十三
○ 辰의十一
● 午의十二
○ 巳의十二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對局者談 白午의十七은 左右呼應에 常例를 使用함이나 完全地帶가아니다 白巳의十三을 黑이 巳의十五로 對應함은 無勇으로 看做하노라

라듸오

十七日(月曜)

午後六時三十分 童話 "이상한수건" 崔益善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濟解說 朱泰植
同八時 常識講座 總督府事務官 宋燦道
同八時三十分 花草四巨里外 一、報念 二、花草四巨里 三、六字백이 四、興打令 高桂仙 高飛鸞
◇同九時二分 (東)管絃樂 近代及現代音樂第八回 騎馬의싈……레스피-기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가에타노·코메리
◇同九時三〇分 野談「大笛地笛」 庚秋岡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童話劇 新童話劇場
◇同六時二五分 (名)趣味講演 史蹟巡禮
◇同七時三〇分 (東)生活改新講座 高久莊之助
◇同八時 (東)흉내내기 中村福助
◇同八時四〇分 (東)琵琶 吉村岳城
◇同九時二分 (東)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十八日(火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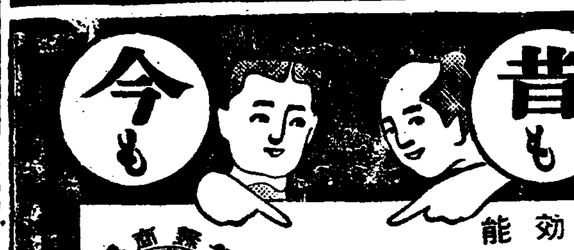
◇午前八時五〇分 (大) 野球試合實況 第二十二回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同六時三〇分 童話劇「비들기」 一景 -配役- 비들기언니…鄭信永 同동생…金鍾善 집업는아이…嚴淵重 사냥군…許涉 구의하인…柳石村 어린이·드라마會 指揮 嚴達鎬
◇同七時 經典解說『義湘大師法性偈』 金泰洽
◇同八時 趣味講演 "關東八景이야기" 徽文高普 金道泰
◇同八時三〇分 野談 "聖火" 申鼎言
◇同九時 歌詞 一、將進酒 二、漁夫詞 文明仙 崔明珠 大笒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山念佛 三、긴난봉가 四、자진난봉가 五、변조난봉가 六、개성난봉가 白牧丹 鄭錦紅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速成獨語講座 登張信一郎
◇同一〇時三〇分 常識講座 藤田亮作
◇午後〇時五分 라듸오·난센스 피엘보이스
◇同六時 (東) 이야기 瀧岩
◇同六時二五分 (京) 講座 出雲路通次郞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澤田良太郞
◇同八時 (大) 金蹄大會—兵庫縣有馬郡三田町有志
◇同八時三〇分 箏曲 尺八獨奏 小原笙山外
◇同九時 納涼演藝—吉住小三蔵外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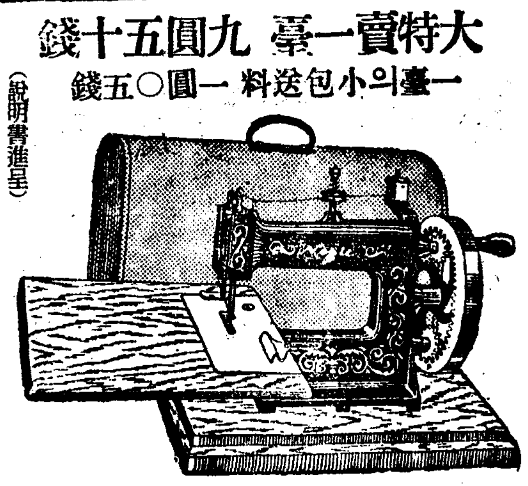
八月十八日 火
陰丙申七月大(初二日)
壬申 金·翼 建
●祭祀嫁娶移徙裁衣上樑辰時納財安葬에 宜함
●處暑二十三日(舊初七日)
●白露九月八日(舊廿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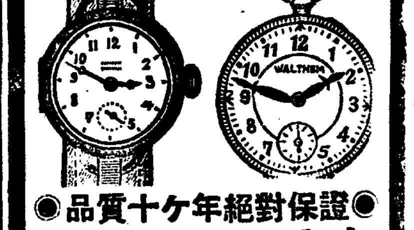
大阪高津表門筋
效能で賣れる
七ふく ひゑぞり
효능으로 팔니는
效能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잘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藥價 半週分廿五錢 一週分五十錢 送料十錢 三週分一圓卅錢 五週分二圓 海外四十錢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 電南二七九

今秋の御仕入は瀧仙特賣品是非御高覽の上御下命の程願上候尚其他各種メリヤス、洋品專賣取扱へ御下命御待申居候
陸軍メリヤス製造元
瀧仙商事株式會社
名古屋市中區末廣町
電話中〇二八四番 振替名古屋一二二番
店名捺印御申込店ニ限リ カタログ贈呈申上候

ノーブルミシン
大特賣一臺 九圓五十錢
一臺의小包送料一圓〇五錢
(說明書進呈)



素人이라도短期練習으로洋服이나朝鮮衣服이라도簡單하게裁縫되는流行型獨逸式國産ノーブルミシン입니다 單式鏈縫으로解剖할제도 絲止도잇치안코、손쉽게풀니며、洗濯縫、덤붓치、又는練習用等에 가장取扱便利하며、安價임으로어던家庭에서나必히 一臺는必要합니다。
寸法 高一尺八寸五分 間口一尺〇五分 奧行六寸五分
名古屋市中区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七七番



◉證保對絶年ケ十質品◉
中分處大品庫在

精工舍製16型クロム懷中

1	七石	市價八圓	特價三·〇〇
2	七石	市價九圓	……三·五〇
3	七石	市價十圓	……四·三〇
4	十石	市價十五圓	……七·八〇
5	十石	市價十九圓	……九·四〇

瑞西製16型クロム懷中

6	七石	市價七圓	特價二·三〇
7	七石	市價十一圓	……三·九〇
8	七石	市價十三圓	……四·八〇
9	七石	市價十六圓	……六·九〇
10	十石	市價十四圓	……五·二〇
11	十五石	市價廿三圓	……九·五〇

瑞西製腕時計11型クロム
(1) 7石市價7圓ノ品特價 2.60
(2) 7石 〃 10圓ノ品…… 3.70
(3) 7石 〃 13圓ノ品…… 5.00

米國製 懷中16型ウオルサム
イ 7石市價25圓ノ品特價 7.50
ロ 7石 〃 33圓ノ品…… 9.00

◀오시하구청를그로다가▶
前金送料不要代引は40錢前送の事
天賞堂 東京淺草松葉町22 振替東京66857

初老·高齡期
青·壯年期
純正 男性 호르몬
國際的으로效力이 優秀를公認하는
エナルモン 에나루몬
强度의疲勞感、能率의低下、倦怠感、頭痛、食慾減退、動脈强化、性力減退
男性的特徵을發揮할수업는性徵不全、生殖器性神經衰弱、性障害、更年期症
國際聯盟호르몬委員파-구쓰博士에依한「男性호르몬劑의效力比較試驗」한結果 에나루몬의效果는다른此較製品보다强力한것은證明되고엇다
(一九三五年七月東京中央試驗所發表)

發賣元 合資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一手製造 株式會社 帝國社臟器藥研究所 川崎市大島

都賣散賣
鑛工衛醫處醫有 山業生療方療名 用藥材器調藥賣 藥品料械劑品藥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二三五〈六}番 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모루히네
其他塩類中毒에

一朝에治療를그릇처서—「모루히네慢性中毒」으로移行하야『奪除困難에苦憫하시는분은곳福모나-루療法에依하야確實하고完全히事業을하면서모루히네類를除去할수잇고速히舊健康體에回復함으로써安心하고應用하기를切望하는바입니다。
(文献贈呈)
發賣 皮下入 5管入 10管入 20管入 50管入
製造元 大阪市東區道修町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MONALFUKU

朝鮮日報社釜山支局電話二八九七番

味の素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天何忍斯! 地何忍斯!

去年瘡痍도尙未祛한 安東地方에또이慘狀

市內는數萬避亂民으로混雜 郡部는西後、北後兩面이尤甚

四年만에또차저온災變

【安東】 지난십칠일오후다섯시부터 나리는 폭우로 오후열한시경에는 북문교(北門橋)와 안동도립의원(安東道立醫院)사이에잇는 제방(堤防)이 위험하게되자 안동수방서(安東水防署)에서는이백오십여명의 단원을 비상소집하여가지고 철야활동하엿스나의전(醫前)형무소(刑務所)압 간견장(乾畔場)부근 옥동(玉洞)일대는 거의친수하야 수국을 이루엇스며 북안과 공포로 하로밤을 지나는 리재민들은 십이일오전열시에 락동강의 증수가륙미돌사실(六米四〇)이되여 안동읍사무소 도립의원 경안양조회사(慶安釀造會社)외 몃개소로피란하엿다한다 안동전군의 피해상황은 방금조사중임으로 아즉확실한수자는 모르거니와 제일 우심한 북후(北後) 서후(西後)양면을비롯하야 피해전액이 사오십만원에 달하리라하며 안동읍의피해상황은 십이일현재의조사만하야도 다음과갓다한다

溺死	一名
負傷	三名
家屋全潰	一五戶
同半潰	一一
同流失	四
床上浸水	一六七
床下浸水	五七三

	流失	埋沒	浸水	被害額
田	三反	一六〇三反	一九七五反	二〇、九二五圓
畓	一〇	三、八二	八九六	三、五五〇
垈	五畝		六八八	三三〇

	流失	決潰	浸水	破損	被害額
道路	一、三〇〇米	二六五米	一〇、五三〇米	三三〇米	三、三九八圓
橋梁	二個所	—	—	一個	一、八〇〇
堤防	—	六九五米	—	七四米	六、三三六

其他 慶北線不通 邱安自動車 車各線不通 暑除한外 朝鐵自動車 共榮自動

에는 새삼스럽게도 벼옥공포에 싸여 두미를 차리지못하고 하천제방과 락동교부근에 인산인해로 헤매고잇든중 십륙일아츰부터 점차주려짐으로 위험을면해가는 주민의 우슴소리가 비로서 나게되엿다

半壞家屋修理에 土賃金暴騰 罹民의二重苦痛

【全州】 마(魔)의수(水)에 삼켜진 전주부내수재의 뒤잣최란지 참하기 짝이업스니 도괴류실된 가옥은 이미수국으로 장사를지내거니와 반괴가옥 상상가옥(床上家屋)에친수되여 잇는곳은위선곳처서라도 드러들가하야 십륙일부터는 수백호의 가옥수리에몰두하게되엿스니 일시에토력공수(土力工手)를 엇게되니 시내에서는 도저히 구할길이업서련근각면에서 응원모집하게되자저금로동자의 근선이란 또다의의 심치아니할수가 업스니 하로림금보통이부 평일에는 오륙십전몰과 지불케되는 임금을 일원오십전이상을 달라고하며 방뭇 논자는속히 기술자라 하야상사 원위지를 청구하겟다고한다

瓮泉市全滅狀態!

松夜川堤防決潰로

【安東】 안동군의수해는 사면이 태의 대수재이며 그중에도 북후면의 피해가 제일크다는바아즉자세한 상황은 본보안동지국 북후출장소(北後出張所)에서 극력 조사중이어니와 안봉선(安奉線)의 요추지에잇는 옹천시(甕泉市)는 십이일오전 두시이십분에 송야천(松夜川)큰제방이터저서 친수가옥이 백오십여호와파괴 류실가옥이 오십일동임으로 옹천지는 가위전멸상태로 피란민은 발금조합사무소에 수용중이라하며 각선의 교통은전부쿰 즁이라한다

洛東江下流 漸次減水 十六日朝부터

【大邱】 락동강물이 증수되여하류인 대저、구포(大渚龜浦)방면에는 위험수위(危險水位)에 달하야 연안주민들은 대우려중에 싸여잇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지난십사일오후부터 감수되다가 십오일야중부터 또다시 부려움으로 증화되엿든 주민의가산속

◇……安東水災畵報—(上)全滅狀態에陷한甕泉市의浸水慘景 (下右)氾濫된安東橋附近(下左)花山書院에收容된避難民

十個年計畫으로 初等校를再擴充

明年度에爲先七十學級增設 平南道當局의方針

【平壤】 평남도에서는 향학열의왕성으로 변부년이학난이 심각화하고잇서서 학교증설하거나 학급증가를하라는 소래는 과연노파가고 잇거니와 평남도당국에서도 금년도로 일면일교가 완성되므로 명십이년도부터 십개년계획으로 취학률의반수를 수용할예산으로 목하학무국에서는 구체적방침을연구중이다 그방법으로 학급의증가 보통학교의신설 간이학교신설등으로 명년도에는 위선칠십학급을 증가하기로되여 그조회책을 료리하고잇다

苗浦地方도暴雨 農作被害多大

【苗浦】 지리한장마로 수일동계속하여오든바 지난십사일 오후십일시부터 폭우가 나리기시작하여 적기(赤崎)까지 일시간동안 정전되여 암흑세계를 이루게되엿스며 피폐한가옥은 파괴할 념려가잇서서 잠못자지못하고 발을새우게되엿는데 이십오일아침에도 개이지안코 그대로 계속하야 농작물의 피해가 만라고한다

生活難에부닥겨 壯年男子縊死

【開城】 극도의 생활난이 주립에겨운 처자식을 절문이로하여금 주엄의대합에 생명을 끈케한 참혹한사실! 부내 경정(京町)륙팔번지 박선진(朴善鎭)(四〇)은 지난십륙일저녁에 반토장(栗數土膽)에 겨우주린창자에요기나하고 거리에 나갓다가 동팔시경에 집으로 드러와 처자식이업는 틈을타서 자긔의 허리띄로 문고리에 목을매고 죽을라고 고민하는것을 나종에 그의 안해가 발견하고 즉시 목을 끌럿스나 그는 드듸여 절명하고말엇다。 그가 젊은청춘을 이가티 죽고만 원인은 요지음 지리한 장마통에 직업으로삼든 과자행상도 심이안되여 실직하고 놀게되자 그후부터 처자식을 먹여살릴수업게되여 차라리 굶주린그들에게 무능한 남편임을 죽엄으로써 사죄하는것이 낫겟다고 그리한것이라한다。

錦江沿岸農作被害 二千三百餘町步

【公州】 별항보도와가리 충남공주지방에 지난십이일에 나린우량은 이백이십오미리오 십오일우량은 이백오십륙미리이다 금강(錦江)증수는 삼십오척이되야 금강류역의 친수면적이 이천삼백여정보로 농작의 피해는 반수회도 엇지못할상태라하며친수전답의 피해로 막대한듯하다 하나 각면의 교통이 두절되엿슴으로 자세한 피해수자는 아즉알수업다고한다

子婦殺害한媤父 取調段落送致

【木浦】 전남진도군군내면 덕병리(珍島郡郡內面德柄里)사는 명성언(明成彦)(五〇)은 자긔의 자부인 박소녀(朴小女)(二〇)가 병든죤녀를 그실가에가 치료하겟다고 데리고 갓섯는데 그어린아이는 며칠후 사망하엿슴으로 그비보를 접한 명성언은 자부의할룻지군로 죽엇다고 격분하야 지난사일에 식도(食刀)로자부를 찔러죽사케하고 곳소관경찰서에 자수하엿다함은 그당시보도한바어니와 그는 이래진도경찰서의 취조를 맛치고 지난십오일에 일건서류와함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검사국으로 송치되엿다한다

地方人事

▲李英雨氏(義城酒造組合理事)新任人事次本社義城支局

開城에棄兒

【開城】 지난십륙일밤 일곱시경! 부내 궁정(宮町)이오공번지 한성섭(韓聖燮)의 대문간엔 어떤 녀인이난지 일주일바게안된 피덩어리아이를 사시반속에 느어서 버리고 도망갓다는바 그후 이를발견한 전과한씨는 즉시 이사실을 개성서에 보고하고 주인이나슬때까지 자긔가 길르겟다말하야다는데 한씨로말하면 슬하에 일점혈육이 업는이라 이런일을 전에도 두번이나 당하얏다한다

人口의增加로 府會議員增選

【平壤】 평양부의 현재부회의원의 정원은삼십륙명은 인구십오만이상 이십만까지를 표준으로한것이나 이십만을 초과할때에는 삼십구명으로 증가를보게 될것인데 작년말에 십팔만이천에달햇든 평양부의인구는 금년말에는 이십만을돌파할것으로보히고 설사 금년말에 이십만을넘지못한대도 명년사월에 부행정구역이 확장될때에는 적어도삼만의 인구를 초과하게되여 삼명의 부회의원의 증원선거를하게될터이다

朝鮮無上의자랑 孫南兩君의制覇祝賀

兩君記念事業으로 體育團體를組織 同時에祝賀會도開催

【光州】 세계마라손대회권을 잡은 우리 손긔정(孫基禎) 남승룡(南昇龍)량군을 축하하고 긔념사업으로서 체육단체를 조직하려고 김홍옥(金鴻玉) 김재찬(金在燦)등 제씨가 활동중 근일중에 구체적회합이 되리라는바 진주잇서야할 체육단체가 전무하든 광주로서 금번 이긔회에 조흔체육단체가 되기를 일반은 고대하고잇스며 그체육회가 조직되는 동시에 전긔 량군의 축하회도 거행하리라는데 지금부터 축하준비가 착착진행하고잇다한다

▲祝賀無料興行

【光州】 세계올림픽대회에서 마라손의 패권을 우리손에 잡게한 조선이나흔 손긔정(孫基禎) 남승룡(南昇龍)량군을 축하하기 위하야 주식회사광주극장(光州劇場)에서는 십삼십사량일간을 무료흥행 공개하게되야 일반관중도 도한량군을 축하하는의미로 만이내관하게되야 무려일천오백명에 달하얏다한다

裡里에서도 記念體育會 祝賀會도開催

【裡里】 조선이 나은 손、남 량군은 이번 올림픽에서 마라손제일착이라는 영예의 우승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요 전세계운동사상에 불멸의 족적을 남기게된 차제에 리리에서도 지방유지의 발긔로 손남량군의 우승축하회를 오는 십팔일 오후팔시 정각에 리리유지원에서 개최하리라는바 지방재현의 다수참가를 바란다한다 그리고 이회에 리리체육회를 창립하기위하야 지난십사일 오후팔시경에 리리경상산회관에 지방유지 명분이 모혀 체육회창립에대한 협의와 발긔위원회를 한다음 동시일시경에 폐회하엿는바 리리체육회 창립총회는 오는십팔일 오후팔시손남양군 축하회석상에서 계속하야 개회하리라고한다

安延 滿洲視察團員募集

△時日 九月五日發、九月十七日歸着
△申請期日 八月二十七日까지
△會費 一人當金百二十圓(汽車賃金其他一切)
▲視察地 平壤、撫順、大連、營口、奉天、新京、哈爾賓、圖們、龍井、朱乙、京城
▲豫定人員 三十名限
◇主催 京城朝鮮鐵道會社延安驛 朝鮮日報社延安支局

兩君의祝賀會 庭球俱樂部主催

【安溪】 반도가나흔 우리의선수 『마라손』왕 손、남(孫南)량군을 세계대전인 올림픽대회에보낸후 시시각각으로 초조한가슴을울켜잡고 제패의쾌소식을밧자 안계시내에는 전연에야 당당히 패권획득의 길보를끝는상태로 거족적 영예의깁봄이넘치여 경구 구락부주최로 다수의시민이참석하야 손、남량군의축하회를 성대히 개최한후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엿다고한다

安康서도祝賀

【安康】 팔월십륙일에 경북안강서는 본보분국주최로안강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마라손제패자 손남량군축하식을 마친다음 전시내에고행렬까지하야 대성황을일우엇다한다

喜悲交集의 制覇祝賀萬歲

【東京】 동경시심천구원강정(東京市深川區猿江町)에 회관을둔 야우회(夜雨會)와 순천긔록경기대회(順天記錄競技大會)주최로 손남량군의 마라손제패 축승회를 지난십일일밤 동회회관에서 리은수(李殷秀)씨 의사회로 열엇는바 북국에서는 김석태(金錫泰)군이 서하야 올림픽 마라손보고를하야엿는데 상내여명이모인 동포들은 감격과감분에교차된 눈물을 흘니며 마라손제패 만세를 고운것듯히놉고 동시에폐회하엿다한다

市日를期하야 祝賀旗行列

【瑞興】 세계 마라손에 제패한 손군과 남군을 축하하려는 서흥에서는 시일을 리용하야 서흥각신문지국체육회주최로 지난십사일오후세시 공보교운동장에 각학교생도 유학생일동 각관청재직자 민간유지제씨 기타 수천명이 모혀 의대를 선두로 특히 송(宋)회가장세홍(張世弘)씨 역작인 손긔정군의 유화(油畫)상을 뒤에메고 축마라손왕의대긔를 놉히 들고 군중은 씩씩한 태도로 서흥시를 일주한후 다시 공보교전에 모혀 손 남양군 만세삼창후산회하엿다한다

兩君을爲하야 感謝金을募集 翠野體育會에서

【翠野】 세계마라손에 제패한손남(孫南)량군에게 사의를표코저 감사금을 모집—해주군취야 지방에서는 금번 백림에서 개최된제십일회 세계올림픽대회에서 지난구일 세계마라손에서 손긔정(孫基禎)군이일착하고 남승룡(南昇龍)군이 삼착으로 제패하엿슴에대하야 그분투전승으로 우리반도강산이 전세계에 들치게됨은 손남량군의 영예일뿐아니라 우리민족전체에 최대 영광이고 상찰리강산이감격의 절정에 달하엿스니 이귀중한 감격은 양군이아니면엇슬수업슬것으로 우리동포는 감사의 뜻을표할바무가잇다는감상하에지난십삼일부터 본보취야지국원으로 일인십전식으로 감사금을모집중이라는데 감사금은 모히는대로 본보 취야지국을통하야 손남(孫南)량군에게 전달키로하엿다한다

愛慾의彼岸 【77】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준상은 비로소 사랑의 괴로움을 느끼지 가라 괴로워 하엿다。 혜련이가 준상에게 대하야 냉냉하면 냉냉할사록 준상의 열은 더욱 노파간다。 준상은 긔회 잇는대로 혜련을 가까히하려하엿스나 혜련의 태도는 언제나 찬 물에 툭 가티 쌀쌀하엿다。 준상이가 아모리 말을 붓처보아도 도모지 겨를 주지 아니하엿다。

혹 바닷물에서 혜련이가 혼자 먼허니 섯는 긔회를 타서 준상이가 그 겨트로 지나가면 혜련은 파랑모자를 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할뿐이고는 준상을 피하는드시 다른데로 헤여가버렷다。 그러할 때마다 준상은 무안하고 낙심하엿다。

김장로는 대개는 텐트 속에 누어잇거나 모래우에서 등을 구으면서 우둑허니 바다를 바라보고 안저잇섯다。 그 겨트로 준상이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면, 김장로는

『옹、평안하시오? 좀 안구려』

하고 다소 호의를 보이는듯하엿다。

김장로의 말대로 준상이가 천막 그늘에 안저잇노라면 흔히 혜련과 문힘이가 볏을 피하랴고 텐트를 향하고 걸어오다가 준상이가 잇는것을 슬적 보고는 내외하드시 다른데로 피해버렷다。 그러면 준상은 미안하야서、

『또 오겟습니다』

하고 김장로에게 인사를 하고 일어난다。 혜련에게도 인사를 하랴고 그의 눈이 저를 향하기를 기다리나 보고도 못 본체하는드시 도모지 준상이편으로 눈을 돌리지아니하고 도로혀 반대방향을 바라보면서 모래 작난을 하거나 문힘과 이야기를 하엿다。 이리되면 준상은 넘어 오래 서섯거릴수도업서서 물로 들어가버린다。

동무들은 수면에 오락가락하는 젊은 여자들을 보고 이런평, 저런 평을 하고는 낄득거리지마는 준상의 눈에는 혜련의 그모양밧게는 다른 모양은 보이지아니하엿다。 대개는 고개를 떠나지아니하는 문힘의 모양까지도 보지못하는 경우가 만앗다。 혹시 자시 헤엄을 치는 동안에 혜련의 그림자를 일허버리면 준상은 물에 우둑허니 서서 눈을 이리저리로 구울려 혜련의 자주 수영복、파랑 모자를 차젓다。 혹은 물에、혹은 모래판에、혹은 김장로의 텐트 미테、혜련의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모양을 차자노코야 비로소 마음이 가라안젓다。

그리다가 만일 어듸서도 혜련의 모양을 못찻는 경우거나 혜련과 문힘이가 그 아버지를 따라서 돌아가는 뒤모양을 본 경우에는 준상은 갑자기 해가 지고 바다가 어두어진것 가티 깨닷는다。 헤엄도 치기 실코 물속에 더잇기도 실혓다。

준상은 스포츠맨은 아니엇다。 학교에서 테니쓰와 철봉도 좀 해보앗고, 고보시대에 선생을 따라서 한、두번 해변 캠핑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금년에도 오면마다 연습을 하엿기때문에 오빈메레쯤은 헤기도 하나 그것이 그리케 조아하는것은 아니엿다。

준상은 제 헤엄으로라도 혜련의 주목을 끌엇으면、하엿다。 그래서 혜련의 눈에 띄일 곳으로 헤여돌앗다。 또 뛰는것도 열심으로 하엿다。 그러나 혜련의 눈은 제게로 오는 것갓지아니하엿다。

준상은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의 압헤 설 때에 제가 어떠케 가난하고 하잘것 업는 존재인것을 깨달앗다。 저로는 감히 그의 신 끈도 매지못할 놉흔 자리에 잇는 것을 깨달앗다。 아모것도、제게는、혜련의 마음을 끌것이 업슴을 깨달을때에——잘 생겻다는 얼굴도、말솜씨、글시재주도、대학생이라는 간판도 혜련의 마음을 끌지못할을 깨달을 때에 준상은 지금까지 자랑으로 알아오든 이 모든것이 다 한 푼어치 가치도 업슴을 느꼇다。

혜련의 마음을 움지기게 할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만일 돈으로 살수잇는것이라 하면 제게 잇는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십헛다。 그것이 만일 뽐을 가지고 할수잇는것이라고 하면 살을 찟고 뼈를 갈아서라도 구하고십헛다。 그러나 준상은、

『아 내게는 혜련의 마음을 살 아모 보물도 업는가』

하고 한탄 아니할수 업섯다。

妊娠時 産褥時 授乳時 와 オリザニン

오리자닌

三共의비타민B

비타민B의始祖

妊娠、産褥、授乳時에는 비타민B의 [illegible]이 [illegible]하지고、[illegible]를 [illegible]하는것은 多數學者의 [illegible]입니다 故로 이時期에는 비타민B의 [illegible]에 不斷의留意를해야 합니다

오리자닌은 비타민B의 [illegible]으로 [illegible]의 [illegible]을 방은것이니다 何故나하면

(一) 發賣以來 約二十年 [illegible] 帝國學士院에서 受賞의 [illegible] 經驗을가진 製品입니다。

(二) 그製品은 [illegible] 하야 비타민B의 效力을 [illegible] 保持하고 恒常不變의 [illegible] 되여잇습니다

(三) 多數의 臨床的經驗으로 그 [illegible]에 對하여는 定評이잇습니다。

妊娠—產褥—授乳時에 오리자닌을 [illegible] 綜合하면

(가) 妊娠嘔吐로 苦惱하는일이업고 거이 [illegible]한다。

(나) 食慾增進하고 便通도 조와진다。

(다) 脚氣의 倂發을防止한다……

(라) 胎兒의 發育이조코 生後에 [illegible]다……

(마) 乳汁의 分泌도 大端히良好해져 哺乳할수가 잇습니다

粉末、錠劑、液기쓰、注射液、十倍强力오리자닌注射液의各種이 잇다

(說明書進呈)

三 SANKYO 共

東京・[illegible]

三共株式會社

産業統制法과 朝鮮實施問題

●……朴用家

그間 當局을 가지하든 重要産業統制法의 朝鮮實施問題는 去十四日 閣議에서 大體實施키로 意見이 一致되어 南總督과 大野政務總監의 諒解를 어든뒤 閣議에서 正式決定하야 마츰내 朝鮮에도 그實施를 보게되리라한다

重要産業統制法의 朝鮮實施可否에對하야서는 이미 論述한바잇거니와 이機會에 한번다시 이法令은 果然어떠한內容가진것이며 그實施로 말미암아 밋치는바 影響은 어떠할가함을 略述하야보는 徒勞는아닐것이다

우리가 普通 重要産業統制法이라는것은 昭和六年八月十一日부터 五個年期限으로 實施된「重要産業의 統制에 關한 法律」을 말하는것이다

이法令의 立法主旨가 一、各企業間의 猛烈한 競爭을 制限하야 産業을 合理化하고 二、獨占産業의 橫暴를 抑制하야 消費者를 保護하려는데 目的은 前者에잇섯다

世界大戰에 當하야 日本은 戰爭圈外에잇섯는지라 米國과 아울러 戰時景氣의 好影響을 바다 各種産業은 實로 飛躍的으로 發展하얏다 그膨大한生産設備는 大戰이 끗나자 大部分이 過剩되지 안흘수업섯다 그러하야 經濟界는 混亂하게되어 企業者間에는 피나는 競爭이 展開되엇다 …來 景氣의 循環法則에는 一大 恐慌이 생기어 好景氣는 잇다고 하야도 旣히 그週期는 이 短縮하고 不景氣、恐慌이 거듭되어 이러케 그러 中 昭和五、六年의 世界的大恐慌의 襲來는 一般産業界를 混亂으로 沈淪식히어 企業者들은 競爭의 惡弊에 逢着하얏다 이에 그惡弊를 防止할目的으로 立案된것이 重要産業統制法으로 自由競爭의 自由放任을 制限하고 獨占形態를 助成하야 競爭을 救濟하게 되엇다 그럼으로 이法令을 「카르텔」助成法이라 하며 資本家擁護法이라는所以도 여긔에잇다 이事實은 이法令의 實施를 보면 더욱 明白할것이다 于先 이法令의 重要規定을 보면

第一條에 重要한 産業을 經營하는者가 生産 又는 販賣에關하야 命令의 定하는 統制協定(即 一、生産數量 又는 販賣數量에 關한 協定 二、生産分野에關한協定 三、其他 販賣價格에 關한 協定 四、販賣方法에關한協定 五、販路에關한協定 六、販賣機關에關한協定 七、共同販賣에關한協定)을 한때에는 同業者 二分의 一以上의 加盟이잇는때는 主務大臣에게 屆出하고 이를 變更、廢止할때도 亦是 主務大臣에게 屆出할것

第二條에 主務大臣은 統制協定加盟者 三分의二以上의 申請이잇는때 該協定이 適正하고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達을 保障하고 重要産業의 公正한 利益을 圖함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는 統制委員會의 議를 經하야 當該統制協定의 加盟者 又는 그協定에 加盟치 안흔 同業者에 對하야도 그協定의 全部又는 一部에 服從할것을 命令할수잇는것

第三條에 主務大臣은 統制協定이 公益에 反하거나 又는 當該産業 또는 이와 密接한 關係가잇는 産業의 公正한利益을 害한다고하는때는 統制委員會의 議를 經하야 그變更 又는 取消를 命할수잇는것

第四條에 主務大臣은 統制上 必要가잇는 때는 統制協定에 服從할業者에 對하야 業務에關한 報告를 徵하고 又는 檢査를 식힐수잇는것

第六條에 이法令에 違反한者에對한 罰則

等이 規定되엇는때 이法令의 骨子는 所謂 第一條의 獨占强化規定과 第二條의 公益……

(未完)

朝鮮水産資源 開發調査機關

殖産局에서設置하라고準備

一面大資本進出顯著

朝鮮水産事業에 對한 調査機關이 날로 길러가고 따러서 日本內地 資本家의 朝鮮進出이 뒤를 다르고 잇는 이 情勢에 對應하야 總督府水産課에서는 明年度에 水産調査機關의 內容充實을 圖하고 朝鮮水産資源의 徹底的調査를 하라고 計劃을 樹立하고잇는데 따로 水産開發根本對策을 研究키爲하야 水産事業調査委員會를하고 調査機關設置說이 잇다 卽産業全體에 對하야는 産業調査會가 今秋 十月第一回會合을 열豫定이며 一般的調査研究를 하기로된바 水産方面은 一般鑛産과는 그事情이 顯著히달르고 水産은 水産으로서 別個의 專門的委員會를設置하야 當面한 重要問題는 勿論 將來에 亘한根本方針等을 專門的立場에서 審議決定하라는것인데 水産調査會設置要望等의 主要한理由로 여긔에 附隨될問題는

一、淺海干潟地의利用方法
一、漁村振興問題
一、魚族의保護와 捕獲制限等에 關한問題
一、漁業金融問題
一、水産加工工業의發展策

等 朝鮮水産事業의將來를 決定할重要政策問題로 諸準備의 事앗다

燃料國策

關係四課가協議

燃料國策問題는 今井田前總監의 退任으로부터 大野新總監에 對하야 重要政策의 하나로 引繼되어잇는바 新首腦部도 現下의 諸情勢에鑑하야 前總督、總監同樣으로 重要國策으로 積極的으로 實施하는것은 明瞭하다 燃料問題로서 朝鮮의 取扱範圍에 屬하는 政策은 石炭의 液化와 無水酒精의 製造가 主要部分인데 酒精으로는 木材보다 澱粉이 有利하다 또 필프工業의 發達에 伴하야 木材資源培養의 必要가잇는 等의 理由로 農林局에서는 일즉이 澱粉資源開發計劃의 樹立을 빨리하고잇는바 十七日午前九時부터 農産、農政、林政、林業、鑛山各課의 關係者가 第三會議室에 參集하야 各課各其所管範圍에서 立案한 案을가지고 이것을 綜合하야 一貫한 燃料國策具體案을 엇고저 協議를하얏다

海州工場能力

五十四萬噸으로增大

朝鮮洋灰海州工場은 當初十六萬噸의 能力計劃이엇든데 이것을 變更하야 年産五十四萬噸의 朝鮮一의大工場化하기로 決定하고 第一期計劃으로 三十六萬噸能力의 工場建設에着手하엿다

洋灰協定成立

朝鮮內洋灰市勢는 非加盟의 朝鮮小野田社와 洋灰聯合會側과의 猛烈한 販賣競爭의 結果、鐵道局 納入洋灰를비롯하야 大口賣買는 一袋七十五錢가량까지 暴落低迷되고잇는데 今回의 小野田社와聯合會와 協定成立으로 兩者間의 協議에依하야 市價回復策으로 大口消費側을 各其歷訪하고 一袋에對하야 于先十錢가량의 引上을交涉中이라한다

自治管理 貯藏倉庫

增設을決定

米穀自治管理法의 實施에伴하야 朝鮮內의 貯藏倉庫增設은 合計二萬一千坪을 今年以後三個年間에 建設키로되어 우선 十一年度는 四千坪의 設置를 計劃키로되엇다 이는初年度四千坪、二年度八千五百坪식 設置計劃으로 坪當標準七十圓으로 建設하고 其中八割의 國庫補助를 行할 豫定으로 總督府에서는 目下各道의 申請에應하야 配定을 研究中이다 그리고 施行規則의 府令案은 十七日부터 審議室에서 審議를 開하엿다

富寧水力創立

十七日東京에서開催

東拓의 富寧水力電氣會社(資本金一千萬圓)는 十七日 東京東拓本社에서 創立總會를 열고 創立에關한 一切件을附議하고 原案대로 可決하엿는데 社長에는 元咸北知事竹內健郞氏가 就任하엿다고

緬羊事業不採算

政府補助增額希望

◇……東拓悲鳴의擡頭

東拓의 緬羊事業은 政府의 補助에 依하야 今年으로써 三年이되는바 右事業의 收支狀態는 政府로부터 緬羊購入補助 牧場建設補助等을밧드래도 飼料에 大部分이업서저버리고 또 仔羊의賣却價는 一頭三十圓 또 一頭에서 收穫되는 羊毛는 二키로 七그람으로 一圓二十四錢에 不過하야 恒常赤字이므로 東拓은 緬羊國策上今後도 緬羊事業을 積極的으로할 方針이나 以上과가튼 赤字補塡을 하기爲하야 政府의 補助金을 希望한다고

朝銀券의發行

保證準備擴張?

朝鮮銀行의 保證準備擴張問題는 懸案이던바 朝銀의 滿洲國撤退에伴하야 總督府에서도 討究하고 大藏省과도 協議中으로 一億圓擴充說이잇스나 結局八千萬圓程度의 擴張으로될 豫定이라한다

藥草取引

改善을研究

朝鮮의 藥草栽培는 總督府의副業奬勵가 奏功하야 相當한增産을示하고 年額四百萬圓을 越過하는 狀況인데 이 取引狀況은 大商側이 朝鮮人有力者로 封建的인때문에

一、大量取引이 行치안는것
一、現金取引이아니오 期末取引인것
一、規格이업시 現物取引인것

等으로 生産者의 不利가顯著하야 總督府에서도 副業奬勵의見地로 이取引是正에對하야 研究中이라한다

朝鮮內洋灰能力

年産二百餘萬噸

總需要의三倍半

朝鮮의 洋灰生産能力은 朝鮮洋灰(五十四萬噸)과 朝鮮淺野洋灰(三十六萬噸)의 兩會社 設置와 朝鮮小野田社(現在能力九十萬噸)의 三陟工場(三十六萬噸)의 新設에 依하야 年産二百十六萬噸이되며 이에朝鮮窯業의 副成特殊洋灰(十萬噸)을 加하면 二百二十六萬噸이되며 朝鮮內總需要의 約三倍가되야 年間約百五十萬噸餘의 供給過剩이되기때문에 多少의 操短을 行하야도 相當히 輸移出을하지안호면 안되게 될것이다

國策決定의 事前工作

藏相이首相訪問

【東京電話同盟】馬場藏相은 十七日午前十時五十分 官邸에서 廣田首相을 訪問하고 國策決定의事前工作으로 藏相이 軍部大臣을 빼이고 各大臣間에 行한 個別的折衝의經過를 報告하고 右折衝의結果를 基幹으로 今後方針을 披瀝하고 首相의考慮를 求한뒤 意見을交換하엿다고

各道起債

約八百萬圓

殖銀에서引受

朝鮮內 各道本年度土木事業振興資金 約八百萬圓은 總督府斡旋으로 各道가 各各 道債를 發行하고 殖銀에서 全部 引受키로 되엇스나 各道의 手續未了로 起債는 多少 遲延케될모양인데 金利는 前回에 比하야 多少 緩和되고 年四分二、三厘程度가될 모양이다 그러고 殖銀에서도 道債發行까지 便宜貸出을하나 道外一、二道로부터 約十萬圓融資申請이 잇슬뿐이라고한다

重要商品界事情

人絹의裁定案

日本人絹聯合會社와 昭和人絹株式會社、太陽레-온株式會社間의 增設錘數에關한 紛糾에對하야 다음과 가티 商工省에서 裁定하고 따라서 當事者는 裁定의趣旨에 基하야 聯合會加盟의 手續을取하게되어 業界의安定을 圖할것이다

▲昭和人絹株式會社에對하야는

(가) 昭和十一年四月末日에現在 運轉할錘數는 一萬二千八百錘로할

(나) 日本人絹聯合會의 新生産設備의制限에關한規約中 今年十月末日까지 運轉할것으로 增設을 認할錘數에 相當한錘數는 七千五百錘로할

▲太陽레-온株式會社에對하야는

(가) 昭和十一年四月末日에잇서 現在 運轉할錘數는 四千八百錘로할

(나) 日本人絹聯合會의 新生産設備制限에關한規約中 今年十月末日까지 運轉할것으로 增設을 認할錘數에 相當한錘數는 六千錘로할

▲聯合會改組 人絹聯合會는 昭和人絹、太陽레-온의新加盟問題는 于先解決을 보앗는데 이에依하야 十月末聯合會加盟各社의 增錘錘數는 다음과가티 되엇다

會社名	八月十三日現在運轉錘數	十月末現在總錘數
帝人	[illegible]	[illegible]
旭	[illegible]	[illegible]
東洋레-온	[illegible]	[illegible]
日本레-온	[illegible]	[illegible]
東洋紡	[illegible]	[illegible]
倉敷人絹	[illegible]	[illegible]
三重人絹	[illegible]	[illegible]
東京人絹	[illegible]	[illegible]
庄內川	[illegible]	[illegible]
錦華	[illegible]	[illegible]
日清	[illegible]	[illegible]
日毛	[illegible]	[illegible]
福島	[illegible]	[illegible]
岸和田	[illegible]	[illegible]
出雲	[illegible]	[illegible]
第二帝人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富士紡績	[illegible]	[illegible]
日本人造	[illegible]	[illegible]
昭和人絹	[illegible]	[illegible]
太陽레-온	[illegible]	[illegible]

即聯合會統制强化로因한 非加盟側의加入은 이번의昭和、太陽의加盟을 最後로 三階段을거친것이다

(一) 昨年十一月로부터 今年三月까지 加入한會社는 福島、日尾、日清、錦華、庄內川、三重의各社

(二) 新錘制限實施에 伴하야 急遽히 加入한것은 日本人造、富士紡績、出雲製織、鐘紡、第二帝人、岸和田의 各社

(三) 昭和人絹、太陽레-온

以上의各期를 通하야 加入한 非加盟會社는 聯合會規約의 關係로 各期마다 增錘承認의 程度를 緩和하고 그結果一萬千錘以下의 中小人絹會社에 相當한實力의差가 생겻다 그러거 旭벰벨크가 聯合會理事會社이나 벰벨크絹絲의聯合會加入을 拒絕하고 다시 十月末의 增錘制限은 이번 商工省의 裁定으로 一段落을 告하엿다고하드래도 操短規定에는 相當히 改良할 餘地가잇는 等의 關係로 今月末 大阪에서 聯合會理事會를 열고 此等問題에 對하야 協議하고 다시 不遠에 臨時總會를 열고 聯合會、統制强化의 再檢討를 하기로 되어 昭和、太陽의 加入後聯合會內部와 改組問題를 件하야 다음과가든請點이 注目된다

(一) 理事會社에 中小會社도加盟됨

(二) 操短率을 改正하야 十月末 增錘를 基準으로 名라이딩制度로 할일

京電收入減少

電車賃改訂으로

京城電氣會社가 八月一日부터 電車區域變更에 伴하는 運金値下에 對한 採算은 實施後 考究中이더니 最近 判明되엿다고하는바 이에依하면 年額約十二萬圓의 減收로 人件費、其他의 撤支出을 節約키로되엇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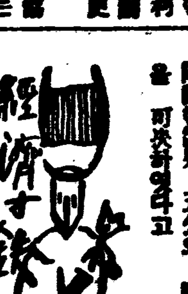
經濟界消息

○朝石工場開業式擧行=朝鮮石油元山工場의 開業式은 九月八日 橋本社長의 臨場을 기다려 열기로 決定하엿다 그러고 製品은 木村常務의 歸任을 기다려 二十日頃 하기로되엿다고

○朝石二回拂込完了=朝鮮石油의 第二回拂込金 二百五十萬圓은 十五日로써 모두 拂내엿다고

○朝鮮貯蓄五分配當=朝鮮貯蓄銀行에서는 十七日 午後一時부터 第二回定期總會를열고 今期決算案과 利益金處分案을 附議한結果 五分의 配當을 可決하엿다고

經濟寸鐵



○朝鮮의 新米收穫은 豊作的예상인데 米價가 만하리라고 하니 오랜만의 豊年인 셈

○釜山도 천하다고 허덕거린다고

○殖銀王國은 副頭取까지 두어 陣容强化 市勢로 치면 天井

株式 極度閑散 不動

商況 【十七日】

前場保合 今前場도 閑散傍觀에잇섯스니 再昨日에 比하야 東新 二十錢高인 百二十五圓二十錢 大新不變인六十六圓八十錢 日産二十錢高인 七十八圓八十錢 朝新不變인三十圓八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七十三圓五十錢 一本 朝石은三十五圓에 弱含되어가저 三十四圓七十錢大引

後場同調 後場도前場과 同調하야 閑散어엇스니 東新百二十二圓十錢 日産七十八圓五十錢에 各大引 朝新三十圓八十錢 大新六十六圓八十錢 各一本이잇섯다

東新革命意識

歷史的新低位

休日을지난 今前場도 株式의商勢는 依然變化가업고 場面은극히 鎭靜하야 閑散하엿다 東新으로말하면 完全東株市勢를 下廻하야 價位와 共히 昭和六年犬養內閣成立以前의 狀態로歸하얏고 金輸再禁以來市勢는 消滅되어버리어서 濱口若槻內閣時代의 不況과同樣이다 貨幣價値의 變化를考慮에너으면 東新의 時價는歷史的低價이며 그럼에도 不拘코買氣가 掃地인것은 東新株에對한革命을 意識한 實物때문이라할것이다

大分岐果如何

夏枯뒤에올것

國策과後繼問題를圍繞코 國內政局의波瀾이 橫在함으로 臆測과 後斷의 浮動이거듭되여 本格的變動이 遞遲하야 夏枯閑散이繼續되는터인데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九月下旬發行豫定인 赤字公債의 條件待로 賣方共히 傍觀하야 內債는 同樣의 軟調에 終始하얏다 米貨債는 直頭待 閑散하야 六分半은 二十錢의 低落을 現出하엿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三五
二回四分利 一〇一、九二
佛貨四分利 一九八、三五

◆甲五分利 一〇一、一八 ▲第三五分利 一〇一、九〇 ▲二八年 一〇一、一八 ▲一回四分 一〇二、四〇 ▲二回四分 一〇二、四〇 ▲佛貨四分 一九八、五五 ▲米貨六分半 四〇九、三五

實物前場取引

▲帝國火災 [illegible] ▲東京電燈 [illegible] ▲滿洲電信電話 [illegible] ▲王子 [illegible] ▲富士木材 [illegible] ▲大同電力 [illegible] ▲日本郵船 [illegible] ▲東京瓦斯 [illegible]

東亞煙草新拂込 東亞煙草新株는 九月一日으로 拂込徵收되어 三十五圓四、五十錢에 賣物이 出하야 二十日後 實出하되 京城에서 二十五圓以上의 有望이 잇서 朝鮮石油株第二回拂込以來 商況이 木村常務의 歸任後 實出하야 …

朝石株三十五圓

朝鮮石油株는 第二回拂込以來 商況이 … 今前場은 三十五圓에 弱含되엇스나 朝石의 將來를 注目할 時期에 잇고 …

米期 少軟後에 更强

前場少弛 再昨後場阪地三十二圓四十二錢止와共히 當市場은 三十二圓二十九錢에場을正한 阪地初付三十二圓四十三錢인 一丁高를 搆하고 三十二圓二十九錢인 亦一丁高로場을시작한後 阪地四十錢으로 小弛하여다가 四十三錢에 止場함을 寫하고 意外軟弱하야 六節十九錢으로 結局二十二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更伸 後場은 다시買氣가생기어 三十圓二十四錢에 二丁高로 始場後 結局 三十一錢 最高價로 止場하엿다

中先反히縮鞘

先强中弱으로

新甫十限이發會되든 當時에百十三丁의 開鞘이든 中先兩限의其後中限의賣物이 續出하야 百四十三四丁으로 擴鞘되드니 今朝에入하야는 反히百三十餘丁으로 縮少되엿다 要하면 先限은 新米時代에 受渡되는 限米이오 中限은 最後端境期에 終價를告하는 限米로 地中先의 開鞘와如히 二百丁까지 擴開될것으로 豫期한바도잇섯다

今日財界 (十七日)

◆米 (單位圓)

	今日	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 三等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利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	前日
東新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1、지금까지의 業界는 朝鮮이 秋市勢가 好轉될것이지 本年產의 場面을 滿케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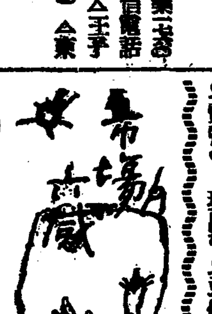
2、或은 大量需要의 出現으로 依然活況을 不許하는데 …

中限의單獨落

그原因은무엇

當地中限은昨朝三十一圓七十九錢을 一擧以後 因而軟弱하야 今朝에入하야 前場의比하야 底値에도不拘하고 中限만은 實物이 淸算現出하야 高値에서 三十五、六丁의 瓦落을 告하엿다 그原因은 今仁川에 保有된 政府의 所有正租約八萬叺을 當地加工精米所에서 玄米로 引出하야 …

市場雜感



◇……場面은 文字그대로 閑散 ◆東新國策이 明年度豫算과共히 今後에 判明될것이므로 … 米 ◇……今番의 全鮮水害를 …

仁川在米減少

八月十五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 合計米는 三一、八七〇叺의 減少를示하엿는데 在庫品의 內譯을 보면 左記와如하다

▲玄米四斗入 二二二、九五〇叺 ▲白米四斗入 五斗入 九〇一叺 ▲白米四斗入 一、九六六叺 ▲五斗入 五四〇 ▲正租叺入 六六、六一四叺 ▲大豆 俵入 一、三六九俵 ▲大麥 一四五叺 ▲粉白米 一、〇二六叺 ▲栗 六、一五二俵 ▲荏子 四八九俵 ▲蕎麥 五〇〇叺 ▲綠豆 一四二俵 ▲糯米 一、五九二叺(合九)九、一八三袋 ▲外國米(日本內地)三、〇四八袋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保合

【大阪電話】全國水害作況은 普通作以上이라는 發表로 高價不振이오 一方賣方은 正米商强으로 賣買수업서 一般觀望氣分으로市勢保合이엇다 今前場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 地場軟派、東京側
買方 朝鮮側、地場弱氣

各地正米

東城軟化 期米不冴로人氣 衰하고 市況五錢軟化이엇다 ㊂三等 三一、六〇 四等三二、三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仁川少弱 末伏氣分으로氣乘薄이데다 期米不味로 置氣去益惡縮하야 五錢低氣配이엇다 ㊂三等三一、六〇 四等三二、三〇 一等白米 一三、七〇

釜山不勢 奧地로부터賣物

大邱兼付 續出不活潑으로 一般이傍觀하고 小口商談이 散見되는程度로 氣配保合 이엇다 四三等三二、二〇 四等三二、〇 一等白米 一三、五 八二

群山閑散 環境不良으로日本內地入荷가적고 取引이 去番一方 實物不添으로 市況은 下落이엇다 ◆三等三一、八〇 四等三二、七五 一等白米 一四、〇

木浦堅調 末伏氣分으로 商談不振이나마 作況不良豫想으로 產地高張하야 期米不勢에不拘코 十錢高唱이엇고 ●三等三一、一〇 四等三一、九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株式會社 東益商店 光皿 金益證券株式會社

米 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十七日

(朝取短期、東京短期、大阪短期、東京現株、大阪長期 等 各取引所 前場・後場 寄付・高値・安値・引値 株價表: 東新、大新、鐘新、朝新、朝取、日産、同新、日石、朝石、日窒、拓新、北紙、滿鐵、滿拓、日鑛、帝人、鐘紡、東株、郵船、東電 等 — 數字 [illegible])

◆朝取期米 十七日 (前場・後場 一節～七節 當限・中限・先限 — 數字 [illegible])

◆仁川期米 / 釜山期米 / 群山期米 / 木浦期米 / 大邱期米 / 大阪期米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前場・後場 各節 當限・中限・先限 — 數字 [illegible])

◆大阪正米價格 ◆大阪市中在米 ◆各地正租市況(單位圓): 京城、仁川、群山、木浦、大邱、釜山、平壤、馬山、咸興、元山、新義州、鎭南浦 等 — 數字 [illegible]

◆商品 十七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紐育棉花 (當限・中限・先限 — 數字 [illegible])

◆金融 十七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利 ◆京城手形交換高 ◆對外爲替 ◆大阪金利 — 數字 [illegible]

◆臨臣 十七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京城鮮米布 ◆京城綿布 ◆綿絲布 ◆綿絲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況 ◆日本雜貨市價 — 數字 [illegible]